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신앙과 삶

11 + 12
NOV + DEC
2019 vol.3



특집

생태환경과 기독교세계관

청년, 삶을 고민하다 창조질서의 회복, 농업적 생활주의를 말하다

문화로 세상 보기 인류 종말, 어떻게 대비할까

온전한 지성 2019 추계학술대회 주목할 만한 논문(1)



ISSN 2671-8731

Contents

NOVEMBER+DECEMBER · 2019

시선 생태환경 파괴와 인류 종말 손봉호	02
편집장의 말 생태환경 돌봄에의 부르심 신국원	04

특집

생태환경과 기독교세계관

생태계 위기의 기원과 도전 프레데릭 로농	06
기후위기와 그리스도인의 삶 김정욱	08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위한 생태교육 노상우	10
생태계의 위기와 음식 김원중	12
기독교 환경론 소고 김봉오	14

사람 사이

종교철학자와 기독교세계관, 프레데릭 로농 교수	16
---------------------------	----

섬김의 자리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학문 연구를 한다는 것 조성표	20
------------------------------	----



2019. 11+12월호 | 제3호(통권 218호)

〈신앙과 삶〉은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창조질서의 회복, 농업적 생활주의를 말하다 | 정성지 22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 김영우 24

청년, 삶이야기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추석나기 그리고
우리들의 시선 | 최성환 26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인류 종말, 어떻게 대비할까 | 추태화 28

예술을 보다

환경미술, 희망을 심다 | 서성록 30

책을 보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환경 교육〉 | 이춘성 32

〈성경의 눈으로 본 결혼과 가정〉 | 정동섭 34

〈Religion in the University〉 | 마이클 맥카시 36

온전한 지성

2019 추계학술대회 주목할 만한 논문 소개(1)

진화론적 생태교육에 대한 세계관적 접근 | 유승민 38

성서적 생태론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위기와
그 회복을 위한 전략 | 정 일 39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의 현실 인식과 조형적 체현 연구
- '생태와 환경' 주제를 중심으로 | 오이석 40

교회 路

수영로교회 세계관학교 소개 :

구속적 문화명령을 수행할 기독교적 지성을 개발함
| 최점일 42

수로 소감문 | 전희용 43

소식

사무국 / 관련기관 44

발행일 2019.11.1 발행인 손봉호 편집장 신국원 편집실무 석중준, 윤지혜
발행처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주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9 E스타워 9층
전화번호 02.754.8004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ISSN 2671-8731
카카오톡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info@worldview.or.kr
디자인·제작 디자인집 02.521.1474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생태환경 파괴와 인류 종말

손봉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만약 인류의 종말이 온다면 그것은 생태환경 오염 때문일 것이다.” 네덜란드 철학자 반 퍼슨(C. A. van Peursen) 교수는 20세기 중반에 한 예측이다. 지금의 상황이 그대로 계속되면 그 예측은 이뤄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바뀌질 것 같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인류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인류의 생물학적 존속이 끝남을 뜻한다.

인류 생존의 종말에는 세 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다. 대형 유성의 충돌, 핵폭탄 폭발, 그리고 생태환경 오염이다. 그런데 대형 유성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은 있지만 확률은 높지 않고 피할 가능성도 있다 한다. 핵폭탄도 지구를 잿더미로 만들만큼 쌓여 있지만 대량살상은 몰라도 인류 전체를 사멸시킬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생태환경 오염은 시작되었고 이미 많은 사람

들을 죽이고 있다. 태풍, 폭서, 혹한, 가뭄, 홍수, 화재 등은 빈도와 강도가 심해지고 있으며, 암과 같은 질병도 오염된 공기, 물, 음식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한다. 이산화탄소가 1700년대의 산업혁명 때부터 30년 전까지 보다 지난 30년 동안에 더 많이 배출되었고 그것이 지구의 온도를 계속 올리고 있어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한 범 정부 위원회’ 등 국제기구가 온도 상승을 섭씨 2도로 묶어야 한다고 경고하지만 계속 오르기만 하고, 그 독기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은 오염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거기다가 중국과 인도 같은 인구대국들은 경제가 빨리 성장하고 있어 미국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인류의 허파라는 아마존이 불타고 있고, 태평양에는 한국국토 7배 넓이의 쓰레기 섬이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도 소수 전문가들 외 대부분은 그 위험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 우선 그 악화 속도가 매우 느려서 마치 서서히 더워지는 물에 있는 개구리가 서서히 삶겨 죽는다는 속설처럼 그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너무 큰 규모로 이뤄지기 때문에 개인들은 책임질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거기다가 우선은 세계 인구는 아직도 늘어나고 현대 과학기술이 가져다주는 편리와 풍요가 너무 좋은데다 자기들 생시에는 종말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안심한다. 당장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자력발전을 지지하면서도 거기에 따를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일부 한국인들의 무책임과 비슷하다.

그리고 비록 심각성을 인식할 만큼의 지적 능력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전기 차, 수소차가 보급되면 배기가스가 줄어들 것이고, 이산화탄소 채집과 재활용 기술이 개발될 것이므로 문제없다는 태도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것에 목숨을 거는 것은 지나친 모험이다. 임계점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한 둘이 아니다. 언젠가는 핵폐기물 처리 기술이 개발될 것이므로 원자력발전을 계속하는 것과 비슷한 무책임이다. 후손들이 쓸 자원은 고갈시키고 후손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은 유산으로 남기는 못한 조상들이다.

생태환경이 오염되면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나라가 먼저 희생된다. 부자는 깨끗한 지역에 가서 깨끗한 음식과 옷을 즐기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럴 수 없다. 오염산업은 약소국가로 몰려서 가난한 근로자들을 병들게 한다. 일본의 공해산업이었던 원진레이온을 가난한 한국이 가져와서 1990년대에 근 300명을 병들게 하고 수십 명의 목숨을 앗은 후 그 때 가난했던 중국으로 팔려갔다가 지금은 북한에 있다 한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약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정

의에도 어긋난다.

기독교 세계관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면 생태계 오염에도 기독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오염을 막거나 줄이는 기술 개발은 물론 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자동차 크기와 사용빈도를 줄이고, 전기와 물을 아끼며, 물자를 절약하되 특히 오염 유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좀 더 춥게, 좀 더 덥게 생활해야 할 것이다.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에 철저하며 재생지와 이면지를 사용해야 한다. 절제하고 절약하면 인류 종말은 그만큼 늦어지고 약자들의 고통도 그만큼 줄어든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생태환경 보존운동은 기독교 세계관운동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기아대책 이사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생태환경 돌봄에의 부르심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창세기에는 인류의 '전적 타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문화가 지속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으로 홍수 후에도 창조의 '구조'가 유지되고(창 1:1-17),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그것을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창 1:28, 9:1)도 계속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류가 여전히 선악과 범죄의 오만을 못 버리고 지금도 바벨탑을 쌓는 행보를 멈추지 않는데 있습니다. 생태환경의 파괴와 위기는 그 결과이지요. 이번 호는 바로 이 이슈를 다룹니다.

벌써 50년 전 린 화이트(Lynn White)가 <사이언스>(Science)지에 "땅을 정복하라"는 문화명령과 거기서 파생된 세계관이 <생태환경 위기의 역사적 뿌리>(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라고 비판한 이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학문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조 발표자인 프레데릭 로농(Frédéric Rognon) 교수님은 그 비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대학의 철학 교수이자 개신교 연합교회 목사로 신학과 사회윤리가 전공인 분입니다. 기술 문명에 대한 탁월한 비판가인 자크 엘룰(Jacques Ellul)의 해설자로 돈, 권력, 기술, 정치의 우상을 버리고 '비무력'(non-power 非武力)과 자유의 윤리를 따라 살자는 '녹색 라벨' 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엘룰은 "유한한 세계에서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한 신화임을 주장했지요. 기술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해법과 원인을 혼동해 새로운 문제를 낳는다는 것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생태환경 보존 운동은 세계관 운동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손봉호 이사장님 말씀은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더 오죽하면 우리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겠습니까? 생태환경 오염이 유성 충돌과 핵의 위험보다 훨씬 현실화되어 있음에 대한 불감증과 무책임함을 질타한 것입니다. 특히 환경운동의 가치를 취약 그룹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강조한 것은, 근검절약과 소형차 타기 같은 자발적 불편 운동을 앞장서 실천하는 삶을 아는 독자들에게겐 설득력 있게 다가갈 것입니다.

본호의 특집 필진에 환경학자뿐 아니라 문학자, 철학자, 교육자, 조경학자, 신학자가 망라된 것은 이 위기의 대처함에 다각적인 전문 지식과 함께 바른 세계관의 정립이 요청됨을 잘 보여줍니다. 환경운동의 뛰어난 전문가이자 활동가이며 저희들의 오랜 멘토인 김정욱 교수님의 글은 특집을 빛나게 합니다. 미세먼지는 에너지 사용량에 비례해 증가한다는 것과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짓는 우리와 달리, 온실가스가 장 줄인 나라들의 발전상을 대조한 후, 신명기 말씀을 들어 약자를 희생시키며 값싼 전기를 누리는 현실이 왜 성경적이지 아닌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생태 문학을 연구하는 영문학자인 김원중 교수님은 <푸드 에콜로지>를 통해 환경보호엔 식생활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책임이 요구됨을 깨우쳐 줍니다. 노상우 교수님은 인간과 자연의 교감과 상생을 위한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으로 환경 문맹 상태를 깨쳐 눈을 열

어주는 교육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동역회의 30년 지기인 조경학자 김농오 교수님은 친환경디자인과 식수사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산천에 주신 아름다움을 지키고 있음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금번 학회에서 발표된 세 편의 논문도 환경과 생태에 관한 글로 세계관적 사역의 역량을 잘 보여줍니다. 정일 교수님의 생물 다양성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 진화론적 생태교육을 기독교적으로 비판한 유승민 형제의 논문도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오의석 교수님은 미국 칼빈대학교에서 기독교적 예술을 위해 연구를 했습니다. 근래에는 자연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육화시키는 '로고시즘 예술'을 시도하며 환경친화적 작품 활동과 기독교 예술가들의 생태와 환경을 주제로 다룬 작가들을 조명한 귀한 연구를 통해 이론 정립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로 세상 보기〉에도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다룬 추대화 교수님의 영화 리뷰와 서성록 교수님의 미술과 환경에 대한 글도 특집과 맥을 같이합니다. 이춘성 형제의 유미호의 신간 〈생명을 살리는 교회 환경 교육〉 소개와 서천에 있는 '아리랜드' 농장에서 농촌 운동을 하는 부모님의 삶을 본받아 이제는 연구자로서 가는 정성지 자매의 시론도 그렇습니다.

〈섬김이〉에 소개된 조성표 교수님은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의 초기 멤버로 저희 단체에 연구소장이며 이사입니다. 오랫동안 학회장을 비롯하여 본인의 전공과 은사를 따라 공동체 전반의 운영과 방향을 제시해 왔으며 '기학연'과 '기대설' 통합의 주역입니다. 학생 시절부터 이 운동을 해온 이야기를 쓰자면 책 한 권 분량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기회를 기대합니다. 금번부터 우리 모두의 오랜 멘토인 웨슬리 선생님의 '본업'인 책 소개가 황영철 목사님의 번역으로 실립니다. 두 분이 '기학연' 초창기 스터디 모임에서 하던 책 읽고 소개하는 활동을 재연하는 것입니다. 이 쪽

지에선 번역되지 않은 근작들이 소개될 것입니다. 금번에는 기독교철학자 윌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의 대학교육에 관한 책입니다. 정동섭 교수님의 〈성경의 눈으로 본 결혼과 가정〉 서평과, 추석 명절을 편히 보내지 못한 최성환 형제는 우리의 삶이 과연 건강한지 묻고 있네요.

〈교회로〉에 소개된 수영로 교회의 세계관 학교는 유래가 매우 깊습니다.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교수이신 최점일 장로님이 20년 가까이 헌신적으로 운영해온 프로그램입니다. 오래전 이규현 담임목사님이 부교역자 시절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해주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식지도 별도로 발간하며 이어온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식지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는 '아마추어'라고 겸손해 하십니다. 양육 받은 청년이 세계관으로 현실을 넘어서는 소감 글도 보내주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창간된 〈신앙과 삶〉이지만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입니다. 편집위원과 사무실 간사님들의 수고와 격려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덕택입니다. 아울러 지난호 소개 동영상을 제작해 준 총신대 재학중인 김유일 형제에게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이번 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건실한 내용으로 채워져 한 쪽지도 빠짐없이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FAITH & LIFE**



글쓴이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한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캐나다 기독교 학문연구소, 네델란드 자유대학교(Ph.D)에서 공부했다. 〈신앙과 삶〉 편집장과 삼일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다.

생태계 위기의 기원과 도전

프레데릭 로농 (스트라스부르대 교수, 종교철학)
번역 김철수 (조선대 교수, 영문학, 학회이사)

이제부터 우리의 현재 생태계 위기에는 ‘인류세’(Anthropocene 人類世)라는 이름이 붙게 될 것이다. 이는 인류가 처하게 된 예기치 못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인간의 활동이 완전히 성장한 지질학적 세력이 되어 우리가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1. ‘인류세’의 역설들 : ‘인류세’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역설을 불러일으킨다. 그 이유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질학적, 기후적 격변의 요인이 의식을 가진 존재가 되어,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고 이를 명확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향후 지구의 미래를 그 손으로 이끌고 나갈 인간의 이러한 지위는 전대미문의 책임을 떠맡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절대적으로 절박한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상 기후, 병하의 해빙과 해수면 상승, 만연된 미세오염, 삼림의 파괴, 돌이킬 수 없는 생물 다양성의 침해, 태평양에 조성된 플라스틱 대륙,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구체화될 돌이킬 수 없는 기후적 기원의 갈등에 직면해 있는 인류는 다음 같은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덤 파는 사람이자 수호자의 역할을 하는 이 세상에 대해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 우리는 전 지구적 규모로 인간의 인식과 행동이 변화하기를 바랄 수 있을까? 그 위기에서 탈출하는 길

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중심된 고찰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며 그 기원과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2. 위기의 기원 : 1967년 린 화이트(Lynn White)의 유명한 논문 <생태계 위기의 역사적 기원>(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이 발표된 이래로, 유대-기독교 전통은 종종 우리를 지탱해 주는 지구에 대한 부끄러운 착취라는 죄목으로 종종 비난을 받아왔다. 창세기 1장에 주어진 “정복하라”는 무제한적인 명령은 그 위기의 주요 매개체가 될 것이다. 인간의 활동이 지구상의 생명의 조건이나 생존의 조건을 황폐화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와 새로운 창조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새롭게 읽도록 유도한다. 만일 우리가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모두 피하고, 각 텍스트를 그 맥락 속에서 재정립하고, 성경 전체의 내부적 논리를 파악하려 한다면, 성경적 계시를 율법과 복음, 사랑과 정의, 신앙과 사역 그리고 특히 지구를 지배할 자유와 하나님 앞에서 지구를 관리해야 하는 책임 사이의 영구적인 변증법 운동으로 간주하는 것이 신중하고 명확해 보인다. 이제 기독교와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러한 성경적 변증법은 서서히 무너졌고, 결국 단 하나의 긴장의 축만 남아 있게 되었다. 즉, 책임 없는 자유는 제약 없는 자유가 되고, 바로 그 때문에 자

유의 반대인 절대적 필연성에 굴복하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성경적 변증법에 대해 충실하지 않음으로써, 아마도 현재의 위기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성경적 변증법을 쇄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3. 쟁점과 출구 : 프랑스의 법학자이자 사회학자이자 개신교 신자인 자크 엘뤼(Jacques Ellul 1912~1994)은 우리가 위기를 탐색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윤리의 기본 축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인류가 길을 잃은 난국에 대해 현재 제시된 대다수의 해결책은 기술혁신의 잠재력을 강조한다. 즉, 지구의 구원은 기술의 과잉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엘뤼가 제안한 관점은 완전히 정반대이다. 그의 추론은 기술 현상과 기술사회를 지배하는 법칙에 대한 지극히 정교한 분석과 더불어 시작된다. 엘뤼에 따르면, 기술의 특징 중 하나는 양면성이다. 기술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지만, 항상 그리고 필연적으로 인간에게 긍정적이면서도 해로운 효과를 창출해 낸다. 따라서 생태계 위기를 해결하려고 기술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결국 그 해결책과 그 원인을 혼동하게 될 것이고, 차례로 재난을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모든 기술적 문제에 대한 모든 기술적 해결책 자체가 양면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례로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한발 앞선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술사회를 지배하는 법칙은 헝가리 물리학자 데니스 가보르(Dennis Gabor 1900~1979)가 표현한 법칙이다. 즉, “기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유한한 세계에서 무한한 성장을 할 수 없다”는 엘뤼의 주장에 동조한다면, 가보르의 법칙

이 지닌 실증주의의 한계를 넘어설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반드시 행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결정론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자기 제한의 능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우리는 살인을 금지하는 율법에서 이것의 상징적 예를 발견한다.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며, 바로 성경적 변증법에 의거한 새로운 거부 행위이다. 엘뤼가 가진 힘과 능력을 쓰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인 ‘비무력(非武力 non-power)의 윤리’를 제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윤리는 ‘힘’, ‘무능력’, ‘비무력’이라는 세 가지 항목의 변증법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본래 힘과 능력이 없는 ‘무능력’과 거리가 먼 ‘비무력’은 할 수 있는 가능성인 동시에 하지 않겠다는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다. 기독교 윤리는 ‘자유의 윤리’일 뿐 아니라, 전능한 존재이나 자신의 무한한 힘을 사용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비무력의 윤리’이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가 체포되던 순간에 천사들의 군단을 부르기를 포기했을 때이다. 이제, ‘인류 세’는 전능한 인간의 시대, 즉 자멸에 이르는 무제한의 힘의 시대이다. 따라서 가보르의 법칙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엘뤼의 기독교적 생태계 보호를 열 수 있는 결정적인 해석학적 열쇠가 될 것이다. 그것은 명철함, 지혜, 절제가 존재하는 곳으로의 길을 열어준다. ‘인류 세’의 도발과 기후 위기의 도전, 특히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극도의 절박함에 직면한 상황에서 엘뤼는 우리를 비판주의도 낙관주의도 아닌 소망으로 초대한다. **FAITH & LIFE**



✍ 글쓴이 프레데릭 로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대학교 종교철학 교수이다. 주된 연구 분야는 자크 엘뤼(Jacques Ellul), 쇠렌 키르케고르(Søren Kierkegaard), 본회퍼(Bonhoeffer)의 저작과 사상이다. 또한 프랑스 개신교 연합교회의 목사이며, 개신교 연합회의 '교도소 정의 사목 위원회' 위원장과 정기간행물 <신앙과 삶>(Foi & Vie)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기후위기와 그리스도인의 삶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 환경공학)



최근에 이르러 폭우, 홍수, 가뭄, 태풍, 폭염, 흑한과 같은 기후재난이 기록을 거듭 갱신하고 있다. 1950년 대 이후 기후재난은 10배 이상 늘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는 20배 이상 늘었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가 계속 된다면 극지방의 동토에 얼어 있는 메탄가스가 녹아서 분출되어 지구의 기후는 견잡을 수 없이 변하여 통제가 불가능해진다고 보고 있다. 그때에는 지구 생물의 95%까지도 멸종할지 모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15년에 채택된 '파리기후협정'은 지구 생태계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화 이전보다 기온이 2도 이상 올라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겪으면서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는 '지구온난화 1.5도'라는 특별 보고서를 채택하였는데, 2도가 상승할 경우에는 북극의 빙하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고, 산호초가 거의 전멸하며 기후난민이 수억 명 발생하여 큰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여태 온실가스를 줄여본 적이 없다. 이명박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전망치 대비 30%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다 공표를 했으나 오히려 대폭 증가시켰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10년 연기하여 2030년까지 37%를 줄이겠다고 했으나 역시 증가시켰다. 그간 많은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왔었는데, 정부가 정직하지 않으면 기업들도 이를 따른다. 최근에 전 세계 13,000개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한 한 논문에 의하면, 서울(수도권)이 인구 4,500만 명의 중국 광주를 따돌리고 또 인구 3,500만 명의 도쿄를 2배 이상 앞지르면서 전 세계 1위를 했다. OECD의 100대 대기오염 도시 중에 우리나라의 도시가 44개를 차지했는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폐암에 의한 사망률이 80년대 이전에 10만 명 당 5명이던 것이 지금은 35명 이상으로 7배 이상 뛰

있고, 폐렴 사망률도 10만 명 당 32명 이상으로 올랐으며, 심장병 사망률도 급격히 오르고 있는데, 이들은 다 미세먼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들이다. 즉, 미세먼지가 매년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데, 이는 기후위기보다 돈을 앞세우는 우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경고일 것이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이유는 에너지 사용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인당 전기 사용량은 OECD 평균의 1.5배에 이르며 GDP당 전기사용량은 OECD 평균의 두 배에 이른다. OECD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전기 사용을 줄이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도 석탄발전소 7기가 계획되어 있고 원자력 발전소 5기가 건설 중에 있다. 우리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경제발전을 저해한다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들은 에너지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줄인 나라들이다. 독일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40%를 줄였는데 경제는 유럽을 떠받칠 정도로 탄탄한 성장을 이루었고, 2050년까지는 에너지를 절반으로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은 전혀 없애는 것으로 계획을 내놓았다. 덴마크는 1970년대 초까지 98.5%의 에너지를 수입하면서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였으나,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면서 에너지 자급을 이루어 지금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올라섰다.

우리는 번두리에 대형 발전소를 지어 약자들을 희생시키고 값싼 전기를 누려 왔는데 이는 성경적이지 않다. 자기가 쓰는 에너지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쓰는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하고, 재생에너지는 생산밀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생산 대량수송이 불가능하여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 우리는 값싼 에너지로 제품을 싸게 만들어 수출을 해서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데, 그

에너지를 수입하느라고 석유 값이 비쌀 때는 근 200조 원에 이르는 거금을 해외에 바쳐왔다. 이 돈을 우리나라에 떨어뜨려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면 나라 살림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많이 생긴다. 우리가 만약에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대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해마다 수십조 원의 돈으로 배출권을 사와야만 한다. 이 돈을 우리나라에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줄여야 나라 살림도 살고 미세먼지 고통도 줄인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길을 주신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신명기 28:2)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신명기 28:2) **FAITH & LIFE**



 글쓴이 김정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서울대 토목공학과(학부), 미 로드아일랜드대 환경공학 석사, 미 텍사스대 환경공학(박사)에서 공부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1982~2011),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고, 현재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푸른꿈 고등학교 이사장, 교회환경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위한 생태교육

노상우 (전북대 교수, 교육학)



우리가 사는 시대의 부정적 양상이 매우 다양하고 심각하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자연과 인간의 불안한 공존 현상이다. 생명체가 살고 있는 유일한 우주인 지구는 각종의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계가 균형을 잃게 되면 자연도 인간도 모두 위협해진다. 자연이 파괴되면 그 안에서 생존하고 있는 사람도 존재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왜 이런 일이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그것도 전지구적으로 일어난 것일까?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과학이 저야 할 것 같다. 많은 과학 예찬론자들은 과학이 인간을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해방하고, 노동의 고통을 덜어주었으며,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과거 보다 훨씬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생태론자들은 과학기

술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파괴하였으며, 급기야는 인간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말았다는 과학비판적 인식을 하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삶의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보고 겪으면서 이에 대한 처방은 무엇일까? 다행히 새로운 세대를 교육하는 학교에서는 자연환경을 위한 생태적 인식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생태교육의 필요를 절감하기 시작하였다. 생태교육을 통해 자연이 인간처럼 생명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인간과 자연간의 교감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 문제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이는 사실 지식중심 수월성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특히 과학지상주의에 따른 맹목적인 과학 추종으로부터 파생된 환경문명상태, 즉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무지를 깨우치고, 친환경적 인식

과 실천의지를 길러주는 교육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생태교육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사례를 통한 실존적 문제 자각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실존적 삶에 직결되어 있는 사례가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오염된 물과 공기와 숲이다. 인간 몸의 70%는 물이고,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90%가 물이다. 물은 체액 및 혈액 속에 들어가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에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추운 겨울의 한파에도 몸이 얼지 않고 버티어 낼 수 있도록 한다. 강과 바다와 하천이 오염되어 물이 생명력을 상실하면 그 물로 채워진 몸은 결국 병들어간다. 오염된 물은 인간과 자연의 불안한 공존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 불편한 사례들은 매우 중요한 생태교육의 주제이다. 단지 물과 공기와 숲과 같은 자연현상을 과학적 지식획득의 대상으로만 다룬다면 그것은 지식중심의 수월성교육일 뿐이다. 만일 학교가 과학을 통한 경제적 가치 증대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지금-여기서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자연과의 공존과 상생은 불가능하게 된다.

나무와 숲을 도구화 하는 능력이 아닌 숲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태적 이성 능력을 키워야 한다. 사회생태론자인 머레이 북친(M. Bookchin)은 생태위기 극복의 마지막 희망은 생태적 이성을 지닌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생태계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것은 인간의 물질적 욕망의 분출 때문이지만, 생태위기를 성찰하고 치유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도 인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태적 이성능력을 기르는 교육과제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인간이 자연 생태계를 감각하고 인식하는 체험교육도 중요하다. 학생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연 생태계 안에서 동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들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 경험이 그들에게 자연의 생동하는 세계를 느끼

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한다. 요즘 생태교육의 붐을 타고 숲교육이 유행이다. 숲이라는 자연은 인간, 특히 아동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의 교육적 가치는 매우 심대하다. 숲은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흔히 숲치유와 같이 숲에서 생성된 피톤치드를 통해 심신의 치유를 체험한 일, 숲을 거닐며 나무를 품고 상호 감응되는 생명의 일체감 등은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간이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공유의 힘'이 바로 숲이라는 생태교육을 통해 생성할 수 있는 소중한 교육의 힘인 것이다.

우리 시대에는 교육의 양적 차원보다는 질적 차원, 외형적인 차원보다는 내면적 차원이 더 중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환경위기의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적자생존적 교육관이 낳은 경쟁적인 인간의 생각과 감정, 가치와 태도를 문제 삼고,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전일적이고 생태적인 연관 속에 각자 건강한 가치를 창출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생명을 존중하는 참된 진보는 정신적 여유, 혹은 영성의 풍요로움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 진보의 원동력은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무분별한 소유를 위해 정신없이 앞만 보고 뛰는 인재가 아니다. 새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자신이 배운 과학적 지식을 생태적 진보에 적용할 수 있는 자이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상생의 철학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자이다. 우리시대는 이런 인재를 필요로 한다. FAITH & LIFE



글쓴이 노상우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이다. 전북대 교육학과(학부), 독일 Ruhr-Universität Bochum(Ph.D.)에서 공부했다. 주전공은 교육사, 교육철학, 청소년 교육이지만, 생태교육에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다. 저서로 <교육의 역사와 사상>(교육과학사, 2011), <생태교육학>(교육과학사, 2015), <생태민주주의>(공역, 교육과학사, 2005) 등이 있다.

생태계의 위기와 음식

김원중 (성균관대 교수, 영어영문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거처로 주신 지구는 인간의 오용과 남용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병들어 여기저기 부인할 수 없는 쇠망의 징후를 드러내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전대미문의 가뭄과 홍수, 태풍은 말할 것도 없고 구제역,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은 심각하게 이 땅에 사는 생명들을 위협하고 있다.

무차별한 산업화와 개발로 인한 온난화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인류가 여태 겪어보지 못한 '기후변화'(climate change)를 가져왔고 이제 그 심각성은 '기후위기'(climate crisis)의 단계를 넘어 다른 생명체의 무수한 멸종뿐만 아니라 인류 자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기후재앙'(climate catastrophe)의 단계로 치닫고 있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이러 변화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다른 아닌 농업과 음식의 문제이다. 현재 대부분의 땅은 산업농으로 인해 원래의 비옥함을 상실해버렸기에 식

량생산은 엄청난 양의 비료와 살충제, 제초제의 살포로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살포된 살충제와 제초제의 5%만 식물에게로 가고 95%는 땅과 하천을 거쳐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 심각하게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바다의 오염이 지속되면 2050년에 이르면 바다는 아무런 생명체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로 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질소비료에서 나오는 질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생성되는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 효과가 300배 더 강력하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인류의 지나친 육류섭취이다. 지금 전 세계에는 현재 인구인 75억 명의 5배를 넘는 약 40억 마리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다. 세계에는 모든 인류가 먹고도 남을 정도의 식량이 생산되지만 세계인구의 1/7인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기아선상을 헤매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에서는 곡물의 70%가 이런 가축을 사육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렇게 많은 소들이 방귀와 트림을 하면 내뿜는 메탄가스는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들이 내뿜는 모든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에 더 기여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자동차의 연비를 높이고, 전기차와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를 개발하고 경유차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육류소비에 관해서는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고 있다.

주류와 담배에 소비세를 부과하고 공공장소에서 흡연과 음주를 금하는 것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만간 육류의 소비를 금하고 육류 소비세를 부과해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런던 대학의 총장이 기후변화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면서 캠퍼스에서 모든 소고기의 판매를 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이다”(A man is what he eats)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먹는 것과 우리 자신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곧 모든 생명의 모판인 땅과 지구 생태계의 건강과 우리 몸의 건강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사용될 지를 결정한다.

미국의 저명한 생태시인인 웬델 베리(Wendell Berry)는 섭생이 진정한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그리고 책임감 있게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의 책임은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책임과 동시에 이러한 음식을 제공하는 생태계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우리가 먹기로 결정한 것이고 이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창조세계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창조세계가 인간이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

든 것이 여호와와 것이요 세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도 다 여호와와 것이다”(시 24:1)라는 말씀에서 보듯,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이 모든 생명체들과의 조화로운 공생을 도모하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기후변화 시대에 기독교인의 책무라 생각된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원중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교수이다. 성균관대 영문과(학부, 석사), 미국 아이오와 대학(Ph.D)에서 공부했다. 주관심사인 영미시와 생태문학, 번역을 주로 강의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생태문학에 관한 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저서로 <푸드 에콜로지>, East Asian Ecocriticism: A Critical Reader (Palgrave Macmillan, 2013)(공저) 등이 있다. 다니엘 새시대교회 집사이다. 능률한 느티나무와 가을 하늘을 밝히는 감나무를 사랑하며 커피의 향기와 시의 향기 사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소망하며 살고 있다.

기독교 환경론 소고

김봉오 (목포대 교수, 조경학)

필자가 <테크놀로지와 생태학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에서 창조신앙과 기독교환경론>이라는 제목으로 동역회의 <통합연구>(1991.10)에 기고한지 어느덧 28년이 지났다. 그동안 환경도 역사도 많이 변했다. 환경 문제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는 1992년 '리우환경선언'(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이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기본철학으로 삼고 있다. 또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01~2015), '지속가능한 지구의 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2030)를 세우고 미래 인류생존을 위한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아울러 자연환경보존의 부단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1-2020)에서 '개발'이라는 용어를 빼고 '지속가능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할 정도로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했으며, 자연보존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년 3% 이상 경제 성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업 문제 등 사회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도시화 산업화 개발에 치중하면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은 불가피해진다. 이 긴장의 의미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면서도 모두 살 길을 찾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현재 지구환경은 1992년 대비 환경의 질은 훨씬 더 나빠지고,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적 재난 앞에 무기력하기만 하다. 이는 국제사회와 국가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구환경을 이해하고 관리해나가는 주체로서 70억 인류 개개인의 행동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현재보다 더 강도 높은 환경보호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교회는 환경 문제에 앞장을 서야한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각 영역에서 특히 생활 속에서 일반 시민, 가정주부와 농어민 초·중고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한 빛과 소금 역할을 앞장서 감당할 수 있다면 인류에게 희망이 다시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치투쟁 수단이 아닌 물신주의와 쾌락주의가 만연된 현대 문명사회에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양심적이고 자발적인 환경보호 운동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탐욕을 버리고 성경 말씀에 순응한 순수한 환경보호 운동의 주체가 될 그릇은 역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방안은 우선 그리스도인들의 의식과 사고 속에 성경적 환경론을 정립시키고, 환경 생활 실천 운동이 범교단적으로, 범교회적으로, 범대중적으로 일어나게 해야 한다. 성경은 인간과 피조물(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물질 대상으로서의 자연은 인간의 숭배대상(우상)도 아니고,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어떤 속성도 아니며, 단지 인간의 삶의 무대요 인간이 다스리고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말씀한다.

또한 인간이 만든 세속문명(조형계) 요소와 각종 문화 행위에 있어서 이방 문화의 상징인 바벨탑과 바벨론 도시를 악의 총체로,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

램에 대한 모형을 선으로 인식시켜 왔다. 이러한 공간개념은 '교회'라는 개념으로 신약시대에 바뀌며, 교회는 세속문화권 속에서 세속문화 및 세속문명(조형계)과 싸우며 거룩함을 지켜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교회가 기독교 문화로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지 못할 때, 기독교 문화권이 이방 문화권에 흡수 소멸되어 버린 예를 우리는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방위 방향에 있어서 수직개념과 수평개념도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 중심, 개인 중심으로 구심점이 이루어지며, 이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다만, 공간적으로 예루살렘은 항상 세계사의 중심을 이루었고 구원 섭리와 세계선교의 방향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운명에 관해서 성경은 우주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성경은 인간이 육체의 부활 후 마지막 심판을 통과해야 하고 오직 구원받는 성도들만이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을 계시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예언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의 길인 교회공동체로 인도해야 하며, 세상 끝날까지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자연 에너지를 먹으며 육체적 생을 지속하되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도 반드시 먹고 살아야 한다. 동시에 바벨론 우상 문화와 세속적 악을 버리고 자연을 건전하게 잘 다스리고 관리해나가야 하는 청지기적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1982년 3월 목포대학교 공대 조경학과에 부임하여 지금까지 목포권, 호남권 국토조경, 그리고 한반도통일과 북한녹화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환경론에 입각한 개발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

결과, 돌산에 불과하던 유달산을 변모시키는 데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었다. 즉, 유달산 일주도로 위로는 친환경디자인을 적용한 대대적 식수사업을 통해 녹화보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일주도로 아래를 개발 균형론을 적용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개나리 축제가 열리게 함으로써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몰려오게 한 것이다. 20여 년 전, 고하도 신항만 건설 당시 국토부 설계에는 고하도 산들을 허물고 그것을 절토해서 매립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공청회에서의 공개 질의 등을 통해 친수 항만을 조성할 것과 아울러, 목포 8경 중 하나인 고하도의 산들을 절토하지 말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다른 곳에서 토사를 운반하여 항만매립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녹지자원 보호에 노력했다. 기독교 환경론이란 자명하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롬8:22).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개발 논리에 힘없이 말없이 난도질당하고 사라져가는 자연의 울부짖음에 먼저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손만대,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국토 가꾸기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승연

국립목포대 조경학과 교수(1982~)이다. 서울대환경대학원(MLA), 전북대학교 박사과정에서 공부했다. 한국조경학회부회장(2015-2016), 한국도서(심)학회장(2017-현재), 문화관광부, 환경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등 평소 현장의 생태환경문제와 관련된 여러 단체의 자문 심의위원으로 섬겨 왔다. 목포대 교수신우회장(2010-2011)을 역임하였다.

종교철학자와 기독교세계관, 프레데릭 로농 교수

지난 10월 26일(토) 성균관대에서 개최된 제36회 기독교학문학회(2019 추계학술대회) 기조 강연자로 초청된 프레데릭 로농(1961~) 교수를 만났다. 그는 프랑스 출신 세계적 개신교 사상가 자크 엘뤼(1912~1994)의 사상에 대한 최고 전문가이자 생태환경 문제에도 지대한 관심을 꾸준히 보여 온 학자이다. 동시에 한국 자크 엘뤼 협회와 '대장간 출판사'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자크 엘뤼 전집 번역(약 50권) 사업에도 지속적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일시와 장소 2019년 10월 28일, 오후 6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인터뷰어 이상민 (서울국제고 교사, 실행위원), **사진** 석중준 (사무국장)

이상민 로농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선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로농 안녕하세요, 프레데릭 로농입니다. 프랑스 개신교 연합교회 목사이면서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대학교 개신교 철학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요. 이 대학은 국립으로서 교수와 연구원 21명을 비롯하여 6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지요. 저의 주된 연구 분야는 자크 엘뤼(Jacques Ellul)의 사상, 쇠렌 키르케고르(Søren Kierkegaard)의 철학, 본회퍼(Bonhoeffer)의

저작, 철학과 신학의 관계, 갈등 관리와 중재, 사회성 철학, 사회정치적 윤리 등입니다. 저는 프랑스 개신교 연합회의 '교도소 정의 사목 위원회' 위원장과 개신교 잡지 <신앙과 삶>(Foi & Vie)의 편집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민 한국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것이지요? 평소 교수님의 마음속에서 한국과 한국 교회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요?

로봉 제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한국 교회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조심스럽군요. 그럼에도 저는 한국 교회들의 규모와 역동성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지요. 프랑스 교회와의 차이점은 교회 체계의 차이인데, 이를 통해 공동체적 삶의 유형과 목회자라는 직업의 유형이 분명히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상민 프랑스에서 자크 엘릴에 대한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고, 또한 ‘환경보호’ 문제에도 관심을 보여 오셨는데,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로봉 저는 환경문제의 긴급함에 대해 점차 자각함으로써 청년 시절부터 환경보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라에 떨어질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저로서는 환경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제게 맞는 참여 방식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즉, 편파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참여하는 것이고, 단지 선거만을 통해서보다는 식품, 교통, 에너지, 여가 등과 같은 일상에서의 변화를 통해 그리고 비폭력을 통해 참여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참여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한국에서 자크 엘릴의 사상은 프랑스에서만 그 가치가 존중받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크 엘릴의 사상이 갖는 가치와 의미, 그리고 그 사상이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던지는 도전의 중요성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로봉 자크 엘릴은 너무 일찍 올바른 판단을 한 인물입니다. 즉, 그가 예견한 대부분의 것은 곧이어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기술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그러합니다. 프랑스에서 그는 살아생전에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지요. 하지만 1994년 사망하고 나서 10년 이후에야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었어야 했음



2019년 10월 26일 열린 제36회 기독교문학회

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의 사상은 프랑스에서 아주 강력히 퍼져나가고 있지요. 그의 신학은 현실 세계를 초월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의 신학은 오늘날 기술적으로 사회적으로 변동된 현실을 중시하고 있으며, 우리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일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릴의 사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던지는 도전입니다. 그는 돈, 권력, 기술, 정치 같은 모든 우상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합니다.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진 힘과 능력을 쓰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는 ‘비무력’(非武力)과 자유의 윤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교수님의 일상 속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시는 때는 언제인지요?

로봉 제가 가장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것은 저의 가족 생활과 관련되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학생들이 자신들을 둘러싼 세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볼 때입니다.

이상민 그리스도인 학자로서 ‘세상’에서 언제 가장 어려움을 느끼시고,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로봉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우리 사회의 변화에 의해, 그리고 그 윤곽이 드러나는 암울한 미래에 의해 쉽게 낙담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와 멀리 동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결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홀로 버려져 있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통해 그 어려움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상민 이번에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된 기독교학문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환경 위기의 근원과 도전’(The Roots and Challenges of the Ecological Crisis)이라는 제목으로 기조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 시대 ‘환경보호’ 문제와 관련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람직한 문제의식과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봉 한국에서든 프랑스에서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각은 기술적 진보를 통해 환경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환상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

것이 우리 자신을 안심시키려고 우리가 집착하는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크 엘렐이 보여주었듯이 기술에는 언제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술은 행복을 가져오는 동시에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기술을 통해 지구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위기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상민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환경보호 문제를 어떻게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프랑스 혹은 유럽의 사례를 들어 말씀 부탁드립니다.

로봉 특히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참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구를 돌보라고 권유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실하기 위해 ‘비무력’의 길을

택하도록 권유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는 다른 사람들과 피조물에 대한 권력 의지와 지배 의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오늘날 유럽에서는 교회들이 ‘녹색 라벨’ 운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동하며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자연환경에 대한 자신들의 흔적을 제한하는 것을 책임지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은 ‘윤리적인’ 은행에 자신들의 돈을 예치하도록 권유를 받습니다. 그런 은행들은 환경보호 프로젝트와 사회연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지구를 파괴하는 기업들을 지원하지 않지요.

이상민 오늘날 유럽 사회는 ‘기독교’의 자리가 점점 더 ‘게토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상황을 야기했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이로부터 한국 교회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로봉 세속화는 사회와 기술의 진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기술을 새로운 ‘신성한 것’으로 삼기 위해 기독교로부터 등을 돌린 것이지요.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교훈은 바로 교회들이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담론을 통해 그런 변화에 대처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크 엘뤼이 <뒤틀려진 기독교>(Subversion du christianisme)에서 지적했듯이, 많은 점에서 교회들은 자신들의 주(主)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취해야 할 가장 좋은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의미와 소망을 줍니다.

이상민 한국의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기독교세계관의 기초 위에서 삶과 신앙의 이원론 극복이라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고, 특별히 다수의 그리스도인 교수, 학자, 대학원생들이 멤버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시대적 사명 같은 것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로봉 저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 대해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제시해야 하는 가장 좋은 증언은 신앙과 삶 사이의 긴밀한 연결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자크 엘뤼이 이끌었던 잡지 <신앙과 삶>의 편집장입니다. 우리는 그 잡지의 글들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현실 세상과 우리의 신앙을 연결시키려고 언제나 애씁니다. 이는 위안을 늘 주지는 않는 현실주의를 거쳐가지만, 그 현실주의는 현실 세계를 초월한 신앙을 회피합니다.

이상민 그리스도인 오피니언 리더를 또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일차적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로봉 아마도 깜짝 놀라운 것일 수도 있지만, 자크 엘뤼처럼 대답해 보겠습니다. 즉, 교회는 사회가 기대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기대하지 않는 곳에 있지요. 제 생각으로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사회의 온갖 방향을 지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와 반대로, 모든 순응 행위를 없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향한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 비판적 정신을 길러야 합니다.

이상민 마지막으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로봉 저는 한국에 다시 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를 지구 양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서 서로 알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FAITH & LIFE

성경적 세계관으로 학문 연구를 한다는 것

조성표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조교수님은 경북대학교에 가시면 김종락, 전창진, 문계완 형제를 만나보세요”

86년 초 경북대학교 부임을 앞둔 시점, 먼저 경북대학교에 가 계셨던 양승훈 교수님이 시카고 대학으로 포닥을 떠나시면서 내게 부탁하신 말이다.

사실 양교수님과의 만남은 과학원 성경공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과학원에서 수수한 옷차림에, 가끔은 흰 고무신을 신고, 우리 경영과학과 성경공부에 와서 도움을 주곤 하였다.

산학장학생으로 공부한 나는 졸업 후 인천에 있는 대우중공업에 근무하게 되었다. 근무 중, 감사하게도 인천대학교 산업공학과에 강의를 나가게 되었다. 장경교수님 연구실에서 ‘기독교대학’이라는 팸플릿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여기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라는 구절이 눈에 띄었다. 순간적으로 “말이 맞네!”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경과 학문연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개념이 내 머릿속에 처음 들어 온 순간이었다.

양교수님 조인대로 김종락, 전창진, 문계완 형제를 만났다. 둘은 박사과정이고, 한 사람은 석사과정이었다. 나이는 나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 때 내 나이가 만 27세이었으니, 세분은 참으로 신실하였기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런 신실한 형제들이 모교의 교수가 되어야 하는데”라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그런데 세 사람 다 유학을 다녀와 현재 경북대학교 동료 교수로 섬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하였다. 도예베르트, 리틀톤, 생소한 철학 분야의 책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듯 모르는 듯 지나갔다. 그런데 세계관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세계관을 들여다보니 내가 공부하는 학문의 근거와 기초를 알게 되고, 그 역할과 한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 경영, 회계적 태두리 안에서만 공부하던 나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다.

이후 경상대학 학생들과 성경의 경제관, 경제시스템 등에 대한 책을 이어갔다. 경제문제의 출발은 ‘인간

의 욕망은 무한하나, 이를 충족시키는 자원은 유한하다'는 희소성의 원칙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경제문제는 1) 어떤 물건을, 2)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3)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에 대한 답을 주는 것에서 출발한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 경제시스템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인간이 만든 경제체제이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부의 생산은 성공하였으나 부익부 빈익빈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평등을 주창한 사회주의는 부의 생산에 실패하여 국민 전체의 빈곤화를 초래하고 말았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두 이념을 조화시키고자 사회적 자본주의 등 중간시스템도 만들었지만, 효율과 평준은 양쪽으로 뛰는 토끼와 같아서 어느 시스템도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지 못하였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둘 중 어느 것을 지지하고 있을까?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의 경제원리에서는 효율과 평등, 두 개념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구약의 경제제도를 보면, 자기 땅에서 난 소출은 주인의 몫이지만(효율성), 추수 시 떨어진 이삭이나 안식년에 자연 발생한 곡물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고아, 과부, 이방인의 몫으로 남겨두라(평등)고 하고 계시다. 성경이 경제학 교과서는 아니지만, 우리의 경제 문제에 대하여 탁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것은 나에게서 놀라운 경험이었다.

내가 경북대학교에 오면서 바랐던 또 하나의 소망은 "나의 전공인 회계학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을 할 것인가?"였다. 이때 한 선교사님의 권유로 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우선 내 자신이 많은 축복을 받았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이 아니라, 돈의 용도와 의미를 알게 되니 돈에서 자유함이 생겨 돈 걱정이 덜해졌다는 뜻이다. 성경적 재정관리에 대한 교회에서의 반응도 뜨거웠다. 그만큼 우리 삶에서 돈에 대한 매임이 크다는

증거였다.

그런데 나의 고민은 회계학 연구가 성경과 연결이 어렵다는 점이다. 회계학 논문들은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실증 연구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테크니컬하여 성경적 개념이 들어오기 어렵다는 점이다. 내 주된 연구 분야가 성경과 유리된 이원론적 삶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이원론적 연구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나의 과제이다. 최근 회계제도론적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경제적 이슈들을 다루고자 시도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물질주의를 극복하는 연구를 좀 더 체계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아직은 시도 단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신 달란트인 회계 전공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라 믿는다. **FAITH & LIFE**



 글쓴이 조성표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이다. 전공은 재무회계 및 연구개발회계이고,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를 연구하였다.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장, 한국회계학회 회장, 한국경영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돈걱정 없는 가정>(CUP, 1992), <하나님이 가르쳐준 행복한 가정생활>(공저, CUP, 1993)가 있다. 현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세계관연구소장과 이사, 대구 성덕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다.

창조질서의 회복, 농업적 생활주의를 말하다

정성지 (서울대 박사과정, 농산업교육)

할아버지 때 시작한 농장에서 가업을 이어 40년 가까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 아버지는 종종 농부라는 직업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자연과 그 섭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직업이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농장에서는 유기농 고구마, 양파 등의 농산물이 생산되고, 동백꽃과 수선화가 만발하는 4월마다 그 뜻을 기념하기 위해 축제가 열리며, 도시민들이 찾아와 소소한 농사거리와 농촌살이를 체험할 수 있다. 나에게 있어 농장은 경제 논리에 입각해 운영되는 산업 현장이라기보다는 이 땅을 경영하는 농부의 철학과 인생이 담긴 삶의 터전이다. 여기서 나온 소출은 산업적 방식으로 대량 생산되어 마트에 진열되는 식료품과는 다른, 농부의 생각과 정성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다. 나는 자신의 터전과 일, 가꾸는 작물과 가축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존경한다. 한때 뉴욕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으나 30대에 사직하고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이자 시인인 웬델 베리(Wendell Berry, 1934-)는 이러한 삶을 바로 '농업적 생활주의'(agrarianism)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특히 인간이 땅에 뿌리를 박고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토머스 제퍼슨의 주장을 바탕으로 '농업'과 '살림'을 연결하여 설명한다.

웬델 베리는 무엇보다 환원주의적 과학과 결정론적 경제학으로 농업을 설명하려는 시대의 흐름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대문명적 사고에 기반을 둔 산업주의

(industrialism)는 가축과 작물을 '생명'이라기보다 '상품'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했고, 이 '상품'을 값싸게 판매하여 수익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둔다. 그러나 자연과 사람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농업의 구성요소는 기계 부품을 교체할 수 있는 것처럼 교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언제나 시장의 법칙에 의해서도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농업이란 오히려 정적이라기보다 역동적이며, 일방향적이라기보다 순환적인 것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며, 의존적인 생태계 가운데 자리 잡은 농업은 개인과 농가, 지역 공동체에 유기적이고 상호적인 영향을 끼친다. 농업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단서는 바로 농업과 관련된 생태계 안에서 생명과 '살림'(삶)의 방식으로 농업을 바라보는 것이다. 농업을 온 삶으로 인식하는 농부는 자신을 경작하는 땅에 대한 애정의 마음을 갖고 '정성이 담긴 농사', '값진 소출', '믿을 수 있는 먹거리', '건강한 사람', 그리고 '하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등의 화두를 품고 나아간다.

산업주의는 자본과 기술을 토대로 형평성과 윤리가 결여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만 농업적 생활주의는 지역과 토지를 기반으로 하여 이들의 관계를 통한 생태계를 관리하고 성장해나간다. 산업주의는 먹거리를 상업적으로 대상화하고 단순화하여 초국적인 자본 경제 구조를 형성하는데 집중했다면, 농업적 생활주의는 농업을 생명과 살림에 연결하여 가정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 기반 자급자족적 패턴을 형성한다. 농업적 생활주의는 과학적 환원주의가 내놓은 산업주의적 농업의 프레임을 깨고, 농업을 우리의 의, 식, 주 등의 생활 방식으로 이해하는 시작이 된다.

나는 이러한 농업적 생활주의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인간 중심적 사고에 기초해 조작된 농업의 개념을 다시 원 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선적으로 중시되었던 생산성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내려놓고, 자연과 공동체라는 포괄적인 기준으로 농업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에 가치를 매기려는 행위로 인해 놓쳤던 그 본질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산출물이 아니라 주어진 선물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착취하기보다 돌보고 보살피려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그의 질서에 따라 운행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되살리려는 회복의 과정이다.

이렇게 농업과 살림을 연결하는 사고방식은 농사를 짓는 농부뿐 아니라 생명을 먹고 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창조질서의 회복하기 위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우리는 농업에 대한 협소하고 고립된 프레임에서 나와 지역 생태계와 사회를 연결하는 삶의 양식으로써 농업을 인식할 수 있는가? 의, 식, 주 등 우리

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농업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농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소양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러한 질문은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농업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농업적 생활주의를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자리에서 창조세계의 질서와 회복에 동참하고 싶다. **FAITH & LIFE**



 글쓴이 정성지

서울대 농산업교육학 박사과정 중에 있다. 충남 서천 '아리랜드' 농장을 경영하며 농촌 운동을 하는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다. 현재 농업문제, 환경소양, 직업교육과 직업가치관 등을 연구하고 있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 서울대 기독교대학원생 모임 부대표이며 서울대학교회 청년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김영우 (연세대 신학과 4학년)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 아마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희망을 보지 못한 까닭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학교 현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남들이 다 하니까 특정 학과에 가기를 희망하고, 그저 자신을 위하여 아등바등 살면서 학점을 위해 동료를 무섭게 밟고 올라서고자 한다. 젊은 날 이와 같이 하나님 세계의 큰 비전 없이 자기 인생에 집중하는 상태가 바로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첫째 이유는 ‘그릇된 객관화’로 인한 하나님 중심의 유신론적 세계 붕괴에 있다. 오늘날 세상을 향한 통약가능성(commensurability) 여부만이 그 실체의 존재 정당성을 확보시킬 수 있다는 객관화 논리 앞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차 기독교 신앙인의 세계에만 사시는 분으로 밀려나신지 오래다. 이제 하나님은 신자들의 세계에서조차 실제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추방되었다. 둘째 이유는 교회에서 ‘성경’의 권위가 약화된 것이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러주고 그분의 가르침과 명령을 알려주는데, 오늘날에는 성경을 무한정 해체하고 재해석하는 태도가

만연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동성에 문제 등을 두고 시류에 편승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많은 신자들이 말씀을 취사선택하는 오류 속에 빠지고 있으며 말씀에 대한 순종은 약화되고 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신자는 자연히 믿음과 멀리 보는 눈을 상실하고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므로 능력을 기대 할 수 없다. 셋째 이유는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로만, 또 영혼 구원 문제만으로 급격히 축소된 데에 있다. 신앙생활에서 개인 영혼의 문제가 가장 핵심에 위치한 것은 분명하고 사회 구원보다 우선 되어야 하는 것도 분명하나, 전자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독교의 상황은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대한 능력을 상실시켰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기독교아리 ‘익투스’에서는 개인 믿음의 영역으로 후퇴한 하나님 신앙, 성경의 권위 약화, 세상에 대한 관심 상실이라는 주요한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다시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의식’ 회복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의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고, 그 법에 순종해야 하므로 이것을 자각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 자각을 통하여 능력이 회복되



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해야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객관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최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저 신앙의 세계에서 인간의 믿음에 기대고 있다는 생각일 뿐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이 안내하는 그 세계 자체가 진정한 객관의 세계임을 자각해야 한다. 둘째,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객관성이 회복된 뒤에 하나님의 법이 제 위치를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신자들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그 때에는 개인의 영적인 문제로부터 세상의 모든 영역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시선이 깨어남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또 야훼 하나님을 자기 주로 모신 사람들은 그의 품에서 안전을 느끼며 큰 비전을 가지고 역사를 돌리는 사람들로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눈이 달라지고 비전이 무궁하게 쏟아진다. 학교 현장에서 나는 이것을 느끼고 꿈꾼다. 나는 내가 서 있는 신학교 하나가 달라지면 전 세계 역사가 달라지리

라 생각한다. 이 신학교에서 복음과 바르게 된 하나님의 가치관이 확립되면 학교가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되면 학생들이 변화하고, 학생들이 변화하면 수십 년 뒤 학생들이 각계의 지도자들이 되었을 때에 나라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면 세계가 변하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교육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와 세계를 위한 계획들을 세워나가고 있다. 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자신의 하나님 백성 됨을 인식하여 그 능력이 회복되고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영우

연세대 신학과 4학년 재학하고 있다. 경시대 국제관계학과를 졸업하고 소명을 받고 연세대 신학과에 학사 편입하였다. 현재 연세대 기독교아리(익투스) 대표로 섬기며 캠퍼스 청년세대를 향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확장을 위하여 전심 노력 중이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추석나기 그리고 우리들의 시선

최성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원)

올해는 선선한 9월 정말 가을다운 가을에 한가위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이 풍성한 한가위를 누렸는지 모르겠다.

“명절이란 산 사람들이 권력관계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말이 한국 현대 사회를 풍미하는 표현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울도 모자라 병이나 정쯤 되는 청년들에게는 잔소리만 풍성한 명절은 익숙하다 못해 언더리가 날지도 모르겠다.

필자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다. 올 1월에 결혼한 필자와 필자의 아내는 곱게 한복을 입고 세배를 하고 결혼 축하를 듣던 설날과 달리 이번 추석엔 “자녀는 언제쯤 생각하니?”와 “손자/손녀는 언제쯤 안겨 줄거니?” 뿐만 아니라 “피임을 하니?”와 “남편이 적극적이지 않니?”라는 질문까지 들어야 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신비를 선물해주시기 전까진 아마 계속 듣게 될 것이다. 아니 출산과 동시에 “둘째는...”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각오가 되어있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사실 우리나라만 유독 이런 참견과 비교 우위 확인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성경의 많은 대목들도 서로에 대한 비교 우위와 참견을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에도 직전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던 베드로는 옆에 있는 요한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요 21:21)

통신의 발달로 자기표현의 수단이 많아진 우리는 온라인/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순간이 누군가에게 보여 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때문에 ‘관옵티콘’(Panopticon)이나 담론에 대한 푸코의 이론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이 글을 읽는 모든 우리는 시선의 권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혹 독자들은 지금쯤 사회학, 문화이론, 미디어에 관한 연구를 떠올리고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필자는 그런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할 능력도 의도도 없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간단하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다운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시선의 무게를 이겨나갈 힘을 교회를 통해서 얻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있다.

우리는 얼마나 상대방을 나의 시선으로 움아매고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시선으로 우리를 움아매고 있냐고 되물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관음의 욕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인기 있는 TV프로그램 중 다수는 그들의 사생활을 관음하는 것을 주 콘텐츠로 하고 있다. 심지어는 사생활의 엿탐을 모여 보며 반응하는 것을 관찰하는 프로



그램들도 있다. 우리의 관음의 대상은 연예인처럼 멀리만 있는 것도 아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목록을 무심결 내리며 프로필 사진들을 훑어 본적이 있는가? 있다면 얼마나 자주 해왔을까? 더 이상 시선의 권력은 연예인, 사회 지도층처럼 한 방향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 시선의 사슬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본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확인 해보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눈을 들어 주를 볼 때~’라는 찬양 가사가 생각나는가? 솔직해져보자. 우리는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가? 교회 내 다양한 모임을 통해 교회는 촘촘한 시선의 그물망을 유지 발전시켜 가고 있다. 교회에서의 시선은 가장 은은하게 그리고 가장 거침없이 우리의 행동을 검열하고 규제한다. 교회 안에서의 시선은 따뜻한 사랑의 눈길로 포장되지만 교회 안팎의 많은 젠더 이슈들, 대형교회와 중소형 교회 사이의 갈등, 성도 간 혹은 성도와 교역자간의 간극과 같이 다양한 문제들이 이 폭력적 시선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주변엔 이런 그물망을 탈출하기 위해 교회를 떠난 ‘가나안’ 청년들이 있다는 것도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시선은 폭력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시작이기도 하다. 교회 안의 촘촘한 시선의 그물망은 어찌 보면 서로에 대한 따뜻한 바라봄 일 수 있다. 같은 시선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와 태도에 따라서 사랑도 폭력도 될 수 있다. 다시 원래 질문을 되짚어 보자.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교회를 통해 시선의 무게를 이겨나갈 힘을 얻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교회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사회의 시선을 이겨나갈 힘이 되어주기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교회의 시선은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폭력이 아닌 사랑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통해 사랑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시선의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사회 속에서 우리를 시선의 그물망의 연장이 아닌 사랑의 시작이 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어려운 문제는 독자분들에게 넘기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할까? 그리고 이 사랑의 공동체에서.” FAITH & LIFE

글쓴이 최성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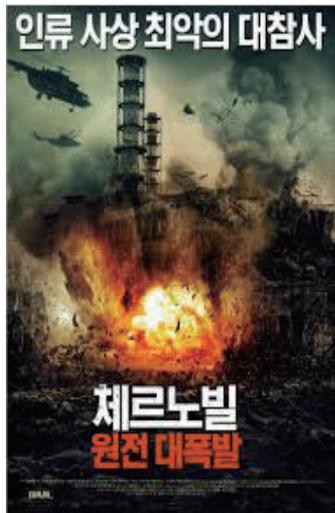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원이다. 카이스트 화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카이스트 학부 시절부터 줄곧 기독교동아리 RACS(Research Association of Christian and Science) 멤버였으며,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대전 새로나교회(예장합동) 청년이다.



인류 종말, 어떻게 대비할까

추태화 (안양대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체르노빌: 원전 대폭발〉
(2015, 바로비프 감독)

지구 종말 시계가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가 역사의 마지막을 맞게 되는 시점을 가리키는 장치다. 지구촌 한쪽에서 상생과 희망을 외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전쟁과 반목, 갈등으로 분위기가 험악하다. 여기다 기후 변화, 환경오염 등은 인류 종말을 더욱 재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11시 50분을 넘어 언제 종말 사이렌에 울릴지 급박한 상황이다.

인류 종말을 보다 더 재촉하는 요인은 단연 핵이다. 세계 곳곳에서 원자력 발전을 위시하여 핵 사용이 급증하는 틈에 핵무기는 군비경쟁에서 위협적이다. 만약 핵전쟁이라도 벌어진다면... 상상하기도 두렵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은 전쟁은 끝나게 했지만, 피폭된 이들은 처참한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최근에 핵을 평화적으로 활용한다는 원자력발전소에 비상등이 켜졌다. 2011년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후쿠시마 발전소 핵발전 설비가 폭발한 것이다. 방사능 문제로 인하여 일본 뿐 아니라 대한민국, 멀리 미국 등 해양을 부딪고 있는 나라들은 방사능 오염으로 인하여 예민한 입장이다. 방사능 오염 물질로 인해 인간이 입는 피해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어떻게 회복할지 가히 아득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르노빌: 원전 대폭발〉은 시사하는 바 크다. 이 영화는 실화를 가공한 작품이다. 1986년 4월 러시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가 배경이다. 알리야는 체르노빌에서 사는 군인의 딸이다. 평화롭게 살아가는 지방의 알리야 가족. 알리야는 활발한 성격으로 친화감이 좋다. 어쩌다 집에 급한 소식을 전해주러 온 군인(파샤)을 만나게 된다. 그는 고아원 출신으로 외롭게 살아왔지만 알리야의 친근함 때문에 급히 친해진다.

평화롭던 마을에 비극이 닥친 것은 원자력 발전소 때문이었다. 시험운행 중 갑자기 폭발사고를 일으킨다. 모든 것은 군부의 통제 하에 비밀에 부쳐진다. 마을은 폐쇄되고 주민은 강제이주 당하였다. 겉으로 보기에 한산한 마을, 실제로는 방사능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죽음의 무덤으로 돌변했다. 작은 생물체들도 주검이 되어 바람에 나부끼고 동물들도 힘이 없이 흐느적 거린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군인들이 작업에 투입된다. 상급 장교는 사병에게 애국심을 조장하여 지원하게 유도한다. 문제가 발생할



시 강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변명하기 위한 속셈이다. 작업조의 작업 시간은 1분, 하루에 세 번만 작업하면 휴가 보내고, 체대도 가능하다는 소리에 그만 자원하는 병사들. 거기에 파샤도 있었다. 그러나 작업 과정에서 심각한 상태로 피폭 당한다. 군의관은 모스크바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부패한 군 시스템은 사고를 숨기기에 급급하다. 파샤는 탈출을 감행하여, 알리샤 집으로 도피한다. 그들은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한 사이가 되었다. 아무도 없는 마을, 알리샤와 파샤. 알리샤는 방사능 위험을 진지하게 자각하지 못한다. 파샤는 방사능에 대해 상식 정도 외에 더 알지 못했다. 아름다워야 할 재회. 그러나 파샤가 점점 병색이 짙어진다. 그는 피폭이 원인이라곤 것을 느끼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다. 코

피가 나고, 두통이 심해지고, 심지어 몸 안이 뜨겁게 느껴지는데 피부는 오히려 냉랭하다. 혈색은 점점 핏기를 잃어가고 온몸에서 생기가 빠져나간다. 결국 병원에 격리된다. 그곳에서 군인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나?

알리샤는 천신만고 끝에 병원으로 잠입해 들어가고 애인을 찾는다. 그러나 그는 격리실에서 죽음을 맞고 있었다. 그에게 종말이 다가온 것이다. 방사능은 비극의 사신(死神)이었다.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이별을 강요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여 아름다운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였다.

누가 핵(核)을 유용하다 했는가. 핵을 개발하므로 인간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인간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핵을 봉쇄하던지, 개발을 멈추던지 해야 한다. 에너지라면 대체에너지를 서둘러 찾아내야 한다. 더구나 무기로 변질되는 핵은 그야말로 비극을 조장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핵발전식은 인류를 비극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핵개발보다는 안전을 먼저 보장해야 하며, 핵무기는 당장 폐기해야 할 것이다. 핵이 인류 종말의 시각을 재촉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차라리 핵 없는 제 3의 대안을 찾아나서야 할 시점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추대화

안양대 기독교문화학과 교수이다. 단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Dr. phil)을 공부했다. 저서로 <광장에서 문화를 읽다>, <영화, 그 의미에 길을 묻다>, <상상력의 유혹>,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외 다수가 있으며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환경미술, 희망을 심다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

전 지구적 생태의 위기와 대기 오염, 자원고갈, 종의 멸종으로 환경의 문제가 초미의 관심이다. 미술가들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 같다. 로버트 스미드슨(Robert Smithson)은 호수의 일부에 나선형의 방파제를 만드는 작품을 했고, 마이클 하이저(Michael Heizer)는 네바다 사막 한 가운데 24만 톤의 흙을 이용하여 거대한 언덕을 쌓는 작업을, 그런가 하면 월터 드 마리아(Walter de Maria)는 뉴멕시코 대지에 스테인리스 스틸막대 400개를 세워 '번개 치는 들판'을 선보였다. 이들의 작품은 대지를 캔버스처럼 표현의 매체로 활용하는 등 기존 미술과 차별화된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작업이 친환경적이라든가 생태위기에 대처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대지와 환경을 이용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오히려 '열린 공간에서의 조각'이란 측면이 더 강했다. 크리스토(Christo)와 그의 부인 클로드(Jeanne Claude) 역시 미국서부 연안을 천으로 연결시키거나 호주의 해안절벽을 흰 천으로 감싸는 작업을 선보였으나 지구가 처한 환경의 문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에코 아트의 윤곽은 요셉 보이스(Joseph Beuys)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요셉 보이스는 카셀이 전쟁으로 인한 폭격으로 재건된 도시라는 점에 착안하여 1982년 카셀 도큐멘다(Kassel documenta)에서

야심차게 일명 '생태사회적 조각'(ecological social sculpture)으로 불리는 참나무 7천 그루를 심는 작업을 시도했다. 첫 번째 나무와 마지막 나무를 그가 심기로 하였고 나머지는 사전에 나무를 분양받은 참여자들이 심기로 하였는데 약속대로 첫 번째 나무는 그가 심었으나 그의 돌연한 사망으로 그의 아들 벤젤이 7천번째 나무를 심는 것으로 이 프로젝트는 마무리되었다.



그림1) Joseph Beuys, 7000 그루의 참나무, 1982-1987

독일 녹색당을 창당했던 요셉 보이스는 푸른 숲으로 바뀐 카셀을 상상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계획했을 것이다. 그러나 보이스의 나무심기가 참나무를 성목(聖木)으로 간주하는 등 참나무를 신성시한 고대 켈트족의 애니미즘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도 있어 무턱대고 좋아 할 일도 아닌 성싶다.

요셉 보이스처럼 실천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연체험을 강조하는 유형의 작가들로는 리처드 롱(Richard Long)과 해미쉬 플톤(Hamish Fulton)을 들 수 있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걷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숲과 산, 벌판, 호수 주위 등을 걸으면서 땅위에 어떤 표식을 남기고 수집해온 돌이나 나무들을 전시장에 재배열하거나(리처드 롱) 혼자 걸거나 일반시민들과 함께 걷는 퍼포먼스를 하는 가운데 주위의 자연을 음미하며 이를 사진으로 남기기도 한다(해미쉬

플톤).

본격적인 에코아트의 작가로는 아그네스 데니스(Agnes Denes)를 들 수 있다. 아그네스는 퍼블릭아트펀드의 지원을 받아 맨해튼 월스트리트에서 두 블록 떨어진 배터리 파크 랜드필에서 1982년에 2에이커의 밀밭을 경작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그녀는 45억 달러에 달하는 비싼 땅에 '비효율적인' 농사를 지었으며 수확한 밀을 때마침 세계 28개국을 순회한 '세계기아종식을 위한 국제예술쇼'를 통해 각국에 나누어주었다.



그림2) Denes Agnes 밀밭-대면, 1982

그녀는 지금도 퀸즈의 파 로커웨이(Far Rockaway)에 있는 120에이커의 매립지에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공원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외에 베이시아 얼랜드(Basia Irland)는 강을 따라 지역의 물의 샘플들을 모으는 퍼포먼스를 통해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앤디 골드워시(Andy Goldworthy)는 나뭇가지, 잎사귀, 얼음, 바람, 밀물, 진흙 등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것들에 관심을 표현하거나, 또는 경성의 재료 대신에 현장에서 획득한 자연물을 재료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조형을 꾸민다.

성경(창 2:28)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선택을 받았다. 우리에게서 혼

히 '문화명령'으로 불리는 '다스리는 사명'이 위임되었다. 시편 72편에 등장하는 '통치자'는 억압을 당하는 자에게 공의를 베풀고 곤경에 처한 자를 구해주며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의를 실천하는 왕으로 기술된다. 여기서 올바른 다스림의 실천은 곧 살림, 곧 모든 피조물의 번성을 이룬다. 따라서 '통치적인 존재'(dominion being)의 개념을 풀이한다면 군림하고 약탈하는 것보다 섬기고 보존하는 것이 원래의 뜻에 가깝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응답이 바로 지구와 그 거주자들을 돌보는 일이다.

환경 미술가중에는 트랙터와 덤프트럭을 동원하여 흙더미 언덕을 만드는 작가도 있고, 나무를 심어 전쟁의 참화를 겪은 지역 및 매립지를 복구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의를 실천하는 미술가도 있다. 그러나 일부 아티스트들의 경우 예술적 실천속에 고대 제의와 마법을 차용하는 작가들도 있어 무조건 환경미술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신중한 분별력이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아그네스 데니스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나는 비록 미약한 사람이지만 가능한 한... 인류를 돕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모든 예술은 어떤 형태로든 인류를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우리의 고향별은 지금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FAITH & LIFE**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현대회화의 발자취>, <한국미술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칼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환경 교육

이춘성 (고신대 박사과정, 기독교윤리학)



미국의 사학자인 린 화이트(Lynn White)는 생태의 위기가 서구를 지배해 온 기독교 신앙 때문이라고 지적했다.¹⁾ 그는 그 이유를 3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기독교의 초월적 신관이다. 동양이나 고대의 다른 신관은 자연 안에 신이 존재하는 범신론이거나 이에 가까웠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연과 분리된 초월적인 신이기 때문에 자연을 대상화할 수 있었고, 자연을 손상시켜도 죄 의식을 가지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 또한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여, 신, 인간, 자연이라는 위계질서를 만들고, 인간이 자연을 사용하고 지배하는 것을 용인했다. 셋째, 인간 중심적인 창조론이 문제이다. 자연은 인간을 섬기고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적인 존재로 강등되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기독교는 근대인들이 자연을 훼손하는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 린 화이트의 비판이었다. 이후에 그의 논리는 환경론자들이 기독교를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비판하는 주된 논리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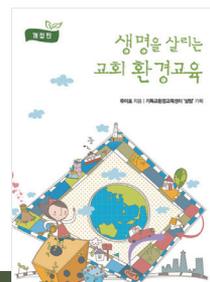
위의 비판은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은 자연을 보존하기 보다는 무작정 소비하고 이용함으로 오늘날의 생태의 위기, 환경 문제를 야

기 시킨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과 성경의 원리가 잘못이기 보다는 기독교란 이름을 가진 자들의 비기독교적인 사고방식과 생활 때문이었다.

린 화이트가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의 창세기 1장 26-28절은 인간의 이기심으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잘못 이해되어 온 측면이 많다. 여기에 나오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은 히브리어로 ‘카바쉬’와 ‘라다’이다. 특히 ‘정복하다’는 말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에 사용된다. 그러므로 강압적이며 공격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이는 앞에 나오는 구절과 문맥에 따라 읽고 해석해야 정확한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며, 자연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경의 전체의 맥락을 통해 이해할 때, 비로소 정복과 다스림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자연을 지으시고 보기 좋았다고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자연을 사랑의 관계로 여기시며, 돌보시고 가꾸신다.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정의, 사랑, 온유, 섬김, 인내, 겸손 등의 덕들을 닦은 윤리적인 존재로서 자연을 통치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이다. 그러

1. Lynn White, “Cultural climates and technological advance in the Middle Ages.” Viator 2 (1972): 171-202.



유미호(지은이)
동연출판사 | 2019

로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 혹은 정원사, 농부로서 이 세상을 가꾸고 돌보는 근본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성경에서 '라다'(통치)라는 말은 임금의 통치를 의미하면서 정의와 사랑과 공의로 다스림을 의미하고 있으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경작은 다스림, 섬김, 예배의 의미로 예배하듯 땅을 돌보는 청지기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볼 때, 성경은 자연을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를 위해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과 그로 인한 죄성은 이러한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고 자연을 무자비하게 정복하고 남용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한다. 그것은 현대에 와서 더 가속되고 있으며, 과학과 경제, 편리와 풍요라는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창조자의 자녀를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자의 정신에 거슬러 살아가는 것만큼 불신앙적 삶이 어디 있을까?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장 자연 친화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 자연 친화적이란 의미가 현대의 환경론자들의 것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닐지라도 성경적인 자연 친화와 환경론을 찾고 이를 배워가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창조자의 아들과 딸들의 책무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청지 지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효과적인 가이드가 될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랜 시간 환경 운동에 몸담으면서 실천해온 실천가이자 이론가인 유미호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센터장의 책인 <생명을 살리는 교회 환경 교육>이다. 그는 그의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환경교육을 한마디로 "인간성과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깨달음과 나눔"이라고 정의한다. 창조와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성경이 담고 있는 위대한 구원의 스토리 속에서 환경교육은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소명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이를 위한 매우 구체적인 실천들과 교육 내용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차질 추상적인 교육에 그칠 수 있는 환경 교육을 우리 주변에 있는 물, 흙, 공기, 재활용 쓰레기 등의 흔한 재료들을 통해 산이나 바다에 가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쉽게 실천 할 수 있는 교육 자료와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창조자의 정신을 닮은 창조자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 것이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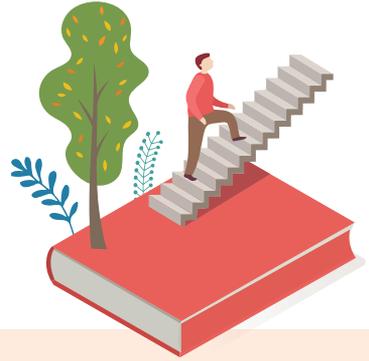


글쓴이 이준성

국제 라브리(L'Abri Fellowship) 선교회에서 간사와 국제 위원(International Member)으로 청년들과 구도자들을 위해 일했으며 합동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M.Div.)와 고신대학원에서 '직업과 소명'을 주제로 연구하여 기독교 윤리학 석사(Th. M.)를 받았다. 현재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 윤리학 박사(Ph. D.)과정을 수료하고 '현대'(Hospitality)를 주제로 연구 중이며, 대전광명교회 협동목사이다.

성경의 눈으로 본 결혼과 가정

정동섭 (가족관계연구소 소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베푸신 공동체에는 결혼과 가정, 교회, 그리고 천국이 있다. 일찍이 스위스 신학자 에밀 부르너(Emil Brunner, 1889~1966)는 “현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결혼과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진단한 적이 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성도덕이 무너지고 있으며,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결혼과 가정은 위기를 맞고 있다.

사상 최초로 현대사회는 결혼과 가정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재정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금까지는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와 복수의 자녀로 구성되는 가정이 ‘정상’으로 통했으나, 요즘 들어 이를 동성결혼 등 여러 가지 선택 중 하나로 보는 시각이 커졌다. 이제 그런 가정을 인간관계의 기본질서의 유일한 형태나 심지어 우월한 형태로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 결혼과 가정은 포위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적 위기의 뿌리는 영적이다. 이 책은 현대 가정의 위기에 대한 영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제도인 결혼과 가정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으며, 결혼생활과 자녀양육에 대한 기독교 신학을 제시하고 있다. 낙태, 피임, 불임, 입양, 동성애와 이혼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통찰과 지침도 성경에 들어있다.

현대 사회에서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이혼과 재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허용할 수 있는 것인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때에 미국 사우스이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의 신약학 교수인 안드레아스 코스텐버거(Andreas J. Kostenberger)박사가 기독교윤리학자 데이비드 존스(David Jones) 교수의 도움을 받아 세계 교회를 위해 성과 결혼과 가정에 대한 종합지침서를 내놓았다. 이 책의 원제목은 <God, Marriage and Family>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전제 아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 제임스 패커 교수를 비롯해 여러 신학자와 목회자는 이 책을 성과 결혼, 가정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재천명한 기념비적인 책이라며, 학자와 목회자, 상담자, 가정사역자 등 하나님의 설계를 진정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삶의 지혜와 방향을 제시하는 탁월한 작품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이 책은 결혼과 가정, 이혼, 재혼, 동성애, 낙태, 피임, 불임, 입양, 독신 등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까다로운 이슈들을 피해가지 않고 성서신학적으로 간결하고 솔직하며 이해하기 쉽게 거론하며 예리한 통찰을 제시한다. 결혼과 가정을 주제로 한 책들이 나와 있지



안드레아스 퀴스텐버거, 데이비드 존스 (지은이) / 윤종석(옮긴이)
 아버서원 | 2016

만,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처럼 통합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안내한 책은 일찍이 없었다. 이 책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종합 안내서라 할 수 있다. 가정사역자와 상담자, 목회자, 신학생은 물론, 행복한 삶의 지침을 찾고 있는 모든 사람이 수시로 참고해야 할 필독서로 추천하고 싶다.

이 책의 독특한 공헌은 퀴스텐버거의 접근법에 있다. 그는 성서신학자로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조에서 종말까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꼼꼼히 그러나 종합적으로 추적한다. 논란이 되는 이슈들을 피하지 않고, 하나하나 공정하게 다루면서 다른 견해들도 충분히 설명한다. 예를 들어, 자녀 체벌, 독신, 동성애, 이혼과 재혼 등의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도표와 토의 질문이 있어 활용하기 쉽고 소그룹에 사용하기도 적합하게 편집되어 있다.

이 책을 읽다가 종종 비교 도표를 접하게 된다. 이 도표에는 각 주제에 대한 저자들의 입장과 다른 의견이나 견해를 비교해 놓았다. 따라서 여러 견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독자가 혹시 시간이 없으면 이런 도표들만 참고해도 자신의 생각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이 책은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해준다. 성과 섹스, 결혼, 가정에 대한 연구하고 논의하고 가르치고 상담하는 복음주의자들에게 이 책은 더 없이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의 행복도를 높이고 싶은가?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주고 싶은가? 이 책을 가까이 하고 관심이 가는 주제를 정독하고 생활에 적용해보도록 하라. 좋은 책이라 확신하면 가까운 이웃과 동역자에게 소개하도록 하라. **FAITH & LIFE**



 글쓴이 정동섭

가족관계연구소 소장이다. 경희대 영문과(학부), 침례신학대 기독교교육학(M.A), 미국 트리니티복음주의 신학대학원(M.A & Ph.D, 상담심리학)에서 공부했다. 지난 20여 년 간 침례신학대와 한동대에서 가정생활과 기독교상담을 강의했다. 현재 가정사역협회에서 운영하는 가정사역강사양성아카데미의 원장, 사이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로도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다.

대학교에서의 종교(Religion in the University)

마이클 매카시 (Michael C. McCarthy S. J.)

책 추천 웨슬리 웬트워스(Wesley Wentworth) 선교사

번역 황영철 목사(수원 성의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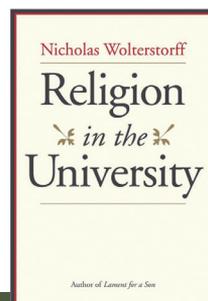
오늘날 학문 세계에서 종교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 학문적 토론에서 종교를 가진 신자들의 관점이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는 이 명쾌하고 예리한 책에서 막스 베버와 존 로크로부터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과 찰스 테일러를 망라하면서 종교 지향과 종교적 목소리가 현대 대학에 자리를 가지고 있음을 논증하며, 그 자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요를 보여 준다. 이를 위해 그는 지난 50년 동안 지식을 이해하는 방식에 관하여 학문 세계에서 발생한 괄목할 만한 변화를 추적한다. [이하 글은 마이클 매카시의 〈학문 세계에서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가?〉(What is the role of religion in the academy? American the Jesuit Review, 2019)를 번역한 전문이다.]

나의 동료가 한번은 현대의 대학에서 정말로 종교의 자리는 없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예수회’(Jesuit) 기관에서 오래 동안 학문 활동을 했으며, 어떤 행정적 결정이 불만스러울 때에는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예수회 가치’에 호소했으며, 자신이 선교 지향적인 곳에 있다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했다. 그러나 그런 가치들의 근거가 되는 어떤 종교적 비전에 대해 말할 때에는 걱정스러워 했다. 그녀는 현대의 대학은 ‘세속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곤 했다.

그녀가 말한 ‘세속적’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내게는 한 번도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주장은 내가 오래 동안 품고 있었던 신념을 항상 확증해 주었다. 즉, 대학교에서의 어떤 종교의 정당한 위치에 대한 주장은 사회 전체에서의 종교의 위치에 대한 관념을 요약적으로 보여 준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우리가 ‘종교’나 ‘세속적’과 같은 주제들에 대해 말할 때에 사용하는 용어들이 자주 제대로 정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01년 예일대학교에서 행해진 일련의 강의들을 다시 정리한 그의 저서 〈대학교에서의 종교〉(Religion in the University)에서 월터스토프는 학자들이 견지하고 있는 일련의 가정들을 검토한다. 그는 노트르담 대학교 같은 ‘종교적 대학교’가 아닌 예일 대학교 같은 ‘세속적 대학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시작한다. 그는 예일 대학교 같은 그런 대학교에서 종교적 목소리를 위한 자리가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의미, 가치, 의무, 가치관 같은 것들은 학문적 활동 자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진 막스 베버를 거론한다. 그런 견해가 19세기, 20세기의 ‘연구 대학교’의 분위기를 지배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견해가 도전을 받고 있다. 연구가 어떤 맥락을 가진다는 사실이 점점 민감하게 인식되면서, 학자들은 개별성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 월터스토프는 이것을 페미니스트, 마르크스주의자, 라틴계 등과 같은 ‘인물 정체성’(character identities)이라고 부른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지은이)
Yale University Press | 2013

그렇다면 종교적 목소리가 자리를 확보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월터스토프는 종교의 '비합리성'에 대한 편견이 학문 기관에 어른거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장 '종교 다시 생각하기'(Rethinking Religion)에서, 그는 그런 편견을 밀도 있는 철학적 논증으로 반박한다. 사실 학문적 배움이란 "규범으로 가득하며 목적을 지향하는 사회적 활동"이다. 그 결과 학문 기관들은 그가 '대화의 다원성'(dialogical pluralism)이라고 부르는 핵심적 윤리를 필요로 하는 지적 불일치의 장소이다. 종교적 신념을 포함하여 다양한 신념을 가진 참여자들은 서로의 이유를 **제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유를 **듣기도** 한다. 열린 마음으로 그것들을 들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바른 방식으로 '대학 내의 종교'를 도입한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차이점에 대처할 수 있는 더 잘 준비된 시민들과 지도자들이 세상에 들어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비전은 소망스러운 것임이 분명하다. 이 비전은 우리의 캠퍼스 너머로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만이 이 교만한 배제주의를 가진 것이 아님을" 목격하면서도 이 "광대하고 다원적이며 다면적인 대화"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월터스토프는 인정한다. 우리가 서로에게 말하기가 어려워진 이 현상은 대학이라는 현장에서만큼 현

대 사회에서도 심각하다. 이 어려움은 세계 전체가 그렇다는 것을 반영한다. 개인적으로 내가 믿기로는, 가치중립적 '학문'(Wissenschaft)에 대한 베버 주장의 긴 그림자보다 오늘날 고등 교육에서의 진정한 대화에 더 위협이 되는 것은, 종교적인 또는 형태적인 면에서 서로 다른 집단들이 자기 구성원들 속에서 만들어낸 더 넓은 우리의 사회적 상황과 기대들이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바른 방식으로 '대학 내의 종교'를 도입한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차이점에 대처할 수 있는 더 잘 준비된 시민들과 지도자들이 세상에 들어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속적 대학'과 '종교적 대학'은 나름의 독특한 평판들과 관행들을 견지하겠지만, 만약 그들이 '대화의 다원성'에 함께 집중한다면, 나는 그들이 나의 이전 동료가 주장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 실로 월터스토프의 생각처럼 서로 다른 교육 기관들의 다원성 그 자체가 미국에서의 고등 교육을 더욱 비옥하게 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마이클 매카시

뉴욕에 소재한 포담대학교 신학부 교수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고, 스탠포드대학교에서 언어와 문학, 옥스퍼드대학교(M.A)와 노트르담대학교(Ph.D)에서 고대 기독교와 유대교를 연구했다.

진화론적 생태교육에 대한 세계관적 접근

유승민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교육학)

본 논문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태생적으로 진화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생태교육의 세계관은 무엇이며, 그 안에 담긴 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의 목적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진화론과 창조론의 오랜 논쟁을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태교육의 의미가 세계관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있다. 이에 더하여 다양한 생태적 위기 가운데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기독교적 담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성과 과학에 기초한 진보가 인류를 번영으로 이끌 것이라는 근대적 사고는 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배제하고 과학적 지성과 합리적 지식을 중시하는 객관주의적 사고를 가져왔다. 이는 학교에도 영향을 주어 분절된 교과 지식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그릇된 신화에서 벗어나 상생을 위한 생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이원론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지식의 생태계를 재구성하고, 개인의 정체성과 세계와의 관계성이 상호연관된 교육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생태교육은 필연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특히 생태계를 하나의 전체적인 유기체적 구조로 보는 관점은 인격적 지식을 주장한 플라니의 관점과 상통한다. 그는 암묵적 지식의 실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인격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지식의 특성은 예술의 성격과 유사한데, 대상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표현 방식은 객체를 관찰의 대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주체와 연결시킨다. 근대의 자연과학자들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생태학 이론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대표적으로 다윈은 귀납

법을 제시한 베이컨의 가르침대로 세계 각지의 동물물에 대한 관찰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화이론을 체계화하였다. 생태학의 주창자인 헤켈도 다양한 동물군을 관찰하고 그리면서 자연의 시각적 질서를 형상화하고 동시대의 미술과 건축 양식에 도입하였다.

이렇듯 과학적 탐구와 예술적 창작의 통합은 현대 진화론자들과 생태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자연의 모든 범주에서 진화의 일관성과 독특성을 증명할 유용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특징은 과학적 이론과 지식의 전수를 여전히 중요시하는 학교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다시 말하여, 교과서나 박물관에서 학문적으로 잘 표현된 그림과 글은 신뢰할 만한 지식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고, 학습자와 감상자들로 하여금 추론과 해석에 있어서 오류가 없는 증명된 지식으로 받아들여지게 한다. 그러나 생태교육의 목적은 자연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지배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찾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연선택과 생존경쟁을 주장하는 진화론이 생태주의가 추구하는 정신과 의미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는 달리 안식과 샅롬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강조하는 기독교적 교육은 생태교육 본연의 이념과 실천방안을 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본 논문은 2019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추계학술대회 대학원생부 '교육분과' 발표논문이며, 전체 본문은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www.worldview.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성서적 생태론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위기와 그 회복을 위한 전략

정 일 (목포대 교수, 중국 언어와 문화학과)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서론, 2) 하나님의 생태지상명령: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 3) 성서적 생태적 사명과 생물다양성 회복 및 생태회복운동에 대하여, 4) 향후 성서적 생태운동의 방향과 과제, 5) 결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롬8:20~22절)

기독교적 생태관이란 무엇인가? 생태관의 기독교적 이해라는 의미이며, 또한 성서적 생태관을 말하는 것이다. 성서적 생태관이란 성서에서 생태, 즉 이 세상의 땅과 하늘, 그 안의 자연생물이 성서생태관적 의미로 볼 때에 어떻게 해석되는냐는 점이다. 이 모든 것들은 로마서 8장 22절에 나타난 것처럼 피조물 즉 모든 자연이 함께 탄식하여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성서적 생태관은 인간이 최악, 최성으로 인하여 자연만물이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또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롬 8:20)는 개념이나,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롬 8:21)는 것은 모두 인간의 죄성, 즉 각종 인간의 부패성이 모든 만물들을 부패하게 하며 힘들게 고통하게 한다는 개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의 탐욕, 인간의 탐닉, 절제되지 않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으로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피조물 곧

만물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대량생산, 대량학살, 대량소비, 비정상적인 종자변형을 통한 유전공학 실험, 실험관 실험에 의한 동물복제실험, 기존의 병원체를 변형하며 만드는 새로운 병원체 및 박테리아, GMO 작물, 방사능 핵오염물질의 양산, 해양 쓰레기의 급증, 대기오염, 사막화 현상, 인도 GMO 면화종자에 의한 질병과 고통*, 이스터 섬의 주민 소멸, 아마존 산림 황폐화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부패와 탐욕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달리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성서적 생태관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회복, 물의 회복, 자연의 회복, 하늘의 회복 곧 대기의 회복 등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적 생태관은 무엇이 오염되고 무엇이 부패되어 있는지의 부패의 상황에 대한 인지를 중심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가 생태운동 내지 공동체운동으로 연결되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생명의 회복, 자연의 회복, 생태의 회복, 토질의 회복, 대기의 회복 또한 땅과 하늘, 인간의 오염 및 부패로부터의 회복을 부르짖으며 그 회복을 위한 관련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생태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글로벌 종자회사인 몬산토(Monsanto)는 이러한 인도의 항의에 따라 인도에 차세대 GMO 면화종자 보급계획을 철회하였다.



본 논문은 2019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추계학술대회 교수/일반부 '교육 A 분과' 발표논문이며, 전체 본문은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www.worldview.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의 현실 인식과 조형적 체현 연구 - ‘생태와 환경’주제를 중심으로 -

오의석 (대구가톨릭대 교수, 미학)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에서 환경과 생태의 문제를 다루는 작품과 작가의 사례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이 한국 사회와 지구촌의 상황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언하며 변혁을 위해 노력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특정한 종교적 주제에 집중되어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에서 비롯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미 진보적인 신학의 입장에서는 환경신학, 생태신학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여러 교회들이 실천적인 차원에서 환경운동에 동참해 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주로 보수적인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복음주의 영향 속에서 성장한 그리스도인 작가들은 현실문제에 대한 관심과 표명이 기독교 미술의 범주 밖의 일로 여긴다.

1980년대 정크(junk)를 집합적으로 활용한 연구자의 작품 일부와 1990년대 김용님의 <환경과 생명전-푸르름의 신새벽을 위하여>를 사례로 다루었다. 둘째는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위기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참여의 경향으로 특정한 동물들을 주제로 선택하여 보존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프로젝트형 작업으로, 박훈 작가의 <반달곰 구출 작전>, <사슴 사냥>, <How Many Dear> 등의 전시와 ‘아트 제안’ 그룹에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 작가들의 작품과 전시를 조명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미술계의 전체의 방향성과 흐름에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생태미술과 자연미술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그리스도인 작가들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일찍이 야투(野投) 그룹 운동을 자생적으로 일으키고 이 활동을 국제적인 프로젝트로 확장해온 작가로 고승현의 작품세계와 개인

적인 차원에서 창조주와의 동역적 조형으로 자연재료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며 활용해 온 조각가 최규철의 작품들과 연구자의 후기 대지미술과 자연 생태 환경전의 작업을 함께 다루었다.



▼ 작품2. 오의석 작, <자양별곡>, 버린 화덕에 텃밭 상추를 키우며 전시한 작품, 2018



▲ 작품1. 오의석 작, <성곡에 살어리 대다>, 칠판콜로 그린 얼굴, 2018

환경과 생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 미술 작가들의 관심을 높이고 현대 기독교 미술의 지평을 현실과 환경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미술을 특정한 종교적 주제 안에 머물지 않고 기독교세계관의 눈으로 만물을 조망하고 다루는 미술로 인정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창조성과 자유정신을 강조함에 머물지 않고 책임 있는 종과 청지기로로서의 예술가의 정체성을 설정하는 기독교 미학의 정립과 수용이 필요하다. 특히 환경과 생태계를 바라보는 책임의식의 회복을 위해서는 문화명령에 대한 적실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정복과 통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경작하고 지키는(cultivate and keep) 관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2019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추계학술대회 교수/일반부 ‘생태환경분과’ 발표논문이며, 전체 본문은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www.worldview.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십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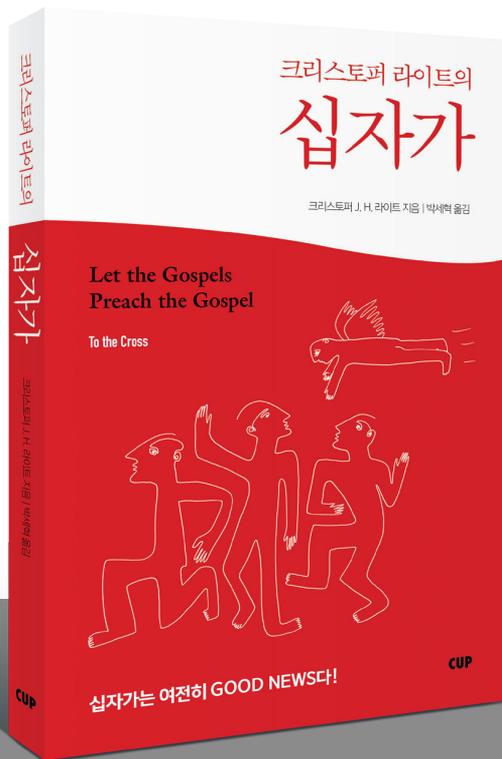
Let the Gospels Preach the Gospel
To the Cross

십자가는 여전히 기쁜 소식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전하는 십자가의 의미

노련한 성서학자의 전문 지식과 원숙한 목회자의 지혜를 겸비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마지막 만찬에서 십자가에 이르는 예수의 여정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지음 | 박세혁 옮김
신국변형판 | 값 13,000원



Printed in Korea

CUP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구약의 렌즈를 통해 최후의 만찬과 베드로의 부인, 군인과 구경꾼들의 조소와 조롱, 십자가형의 고통을 포함한 복음서의 수난 사건을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길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구속적 문화명령을 수행할 기독교적 지성을 개발함

— 수영로교회 세계관학교

최점일 (수영로교회 장로)

수영로교회(이규현 담임목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삶의 전 영역에서 구속적인 문화명령을 수행할 기독교적 지성(영성과 지성)을 훈련할 목적으로 개설하였고, 2003년 세계관 1기부터 2019년 현재까지 17년간 32기를 배출하고 있다.



세계관 훈련과정

15주 과정으로 창조-타락-구속-완성을 기본 틀로 설정하여 기독교적 지성, 이원론, 문화론, 과학-기술-경제주의, 일상의 경이, 청지기적 재정, 성 정체성, 시민교양, 포스트모더니즘-뉴에이지, 기독교적 지도력, 이데올로기, 직업과 소명, 국가관 등을 성경의 틀로 조망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지성 개발을 위해 15-20명으로 구성된 소그룹 토의방식으로 매주 2시간씩 진행하고 있다.



세계관 캠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1박 2일 세계관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3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그룹 토의와 공동체 훈련을 시행해 오고 있다. 가치관이 유사한 동질성이 강한 모임이기 때문에 캠프의 열기는 뜨겁고 40-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관 독서그룹

세계관 수료자들 중심으로 격주 수요일 오후 7-9시 독서모임을 가지고 있다. 기초과정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세계관 관련 도서를 심도 있게 나누는 현장이다.



뉴스레터 발간

컬럼, 거듭난 일상, 캠프에서 다룬 주제 발표 요약문, 세계관 도서 소개, 지체들의 소식을 다루는 뉴스레터를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장년부 세계관학교

대학부와 동일한 15주 과정으로 장년층 남성을 7기 배출하였고, 여성을 13기 배출한 바 있다. 남성을 대상으로 평균 2-3년에 1기를 배출하였고 여성을 대상으로 매년 봄, 가을 2기를 배출해 오고 있다.

수영로교회 세계관학교에서 강조되는 주제 키워드는 “마음(지성)을 새롭게 함으로써 일상을 통한 삶의 예배를 드리자”이다. 미래지향적 목표는 세계관센터를 건립하여 어린이 세계관학교, 중고등부 세계관학교, 대학-청년부 세계관학교, 중-장년부 세계관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몇 가지 선물



수영로 교회 청년 리더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양육훈련을 받습니다. <청년실종, 공동체 성으로 공략하라>의 저자 김상권 목사님은 “부르심을 받아(Call out), 신앙으로 양육되고(Call up),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어야(Call in)함”을 강조하곤 하셨습니다. 때문에 늘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과 ‘세상’이라는 두 세계의 모습이 마냥 같지만은 않기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제게는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고민이 개인적으로 ‘세계관 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관 학교’를 통해 세 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의 후회스러운 선택 때문에 원망도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도 석연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계관 학교’에서 제럴드 시처(Gerald Sittser)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접함으로써, 평범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범함은 곧 비범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러기 위해서는 습관을 위한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과만이 아닌 과정 역시 중요하고, 현재 주어진 책임에 대한 충실함이 왜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둘째로, 이원론을 극복하는 연습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이 다르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원론적 삶이라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관 학교’는 제게 이원화된 이 모습을 하나로 이을 질문들을 던져주었습니다. 토의시간에 풍부한 나눔으로 각자 모습을 점검하였습니다. 가령 한 지체가 이른 나이부터 투자를 통해 경제개념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은 경험이 이후 사업가로서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나누었습니다. 또 어떤 지체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보디빌더를 꿈꾸던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육체 기쁨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되었다고 나누었을 때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질서 회복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흔히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 아이작 뉴턴(Isaac Newton)이 만든 기계론적 세계관을 배우고, 또 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세분화된 마르크시즘 등이 주류 이데올로기가 된 사회를 살아갑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자란 청년도 이러한 인본주의와 유물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관 학교’는 이것이 창조주의 자리를 찬탈한 시대의 모습이며, 창조의 질서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함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선교사나 목회자, 신학생이 아닐지라도,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알게 해 주었습니다. 수료자로서 이제 저는 청년 시기가 창조질서 안에서 신앙과 학문 그리고 직업과 일상의 삶을 잘 통합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쓴이 전희웅

부산대 수학과 학부 3학년 재학생이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으로서, 청년새벽기도 준비요원으로 섬기는 중이며, 사랑부(장애아동) 봉사자,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다.



제36회 기독교학문학회(추계학술대회) 개최

일시 & 장소 : 2019년 10월 26일(토), 성균관대학교 경영관 & 호암관

주제 : “생태, 환경, 그리고 교육”

* 주제강연 : 프레데릭 로농(Frédéric Rognon,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교 종교철학 교수)

김원중(성균관대 영문과 교수, 생태문학), 노상우(전북대 교육학과 교수, 생태교육)

분과발표회 : 대학원생부(교육, 세계관, 상담), 교수일반부(철학, 세계관, 교육, 경영, 생태, 공연예술, 사회과학, 어문학, 동성애, 자크 엘릴)

참가인원 : 약 200명.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임시총회 개최

일시 : 2019년 10월 26일(토) 오후 3:00~3:30

장소 : 성균관대학교(서울) 경영관 지하 1층, 계단강의

안건 : 지난 2019년 7월 30일 이사회에서 통과한 정관개정안 처리

실행위원회 개최

일시 : 2019년 10월 25일(금) 오후 7:30

등재 학술지 <신앙과 학문>

한국연구재단(KCI) 등재학술지 자격 유지 심사 절차 진행 중(2019년 10월 중 결과 발표)

발간 일정 : 3월 30일(2019년 1호), 6월 30일(2호), 9월 30일(3호), 12월 30일(4호)

제3회 기독교세계관학회 개최 안내

주제 : “기독교세계관으로 바로 살기”(제1회: 2016, 제2회: 2017)

일시 : 2020년 1월 10일(금)~11일(토) & 장소 : 삼일교회 C관(서울 용산구 청파로 305)

주최 :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라브리>(성인경 대표) 공동

강사 :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성인경(한국 라브리 대표), 김종철(변호사, 어필),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외 다수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이 사 김성수(前 고신대 총장) 김승욱(중앙대 교수)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양승훈(VIEW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홍명식(사카나야 대표)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박문식(한남대 교수) 최현일(샘병원 의사)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실행위원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김미

영(한국소토 대표) 김성경(VIEW 실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김혜정(CUP 대표) 문준호(주)렘프스 이사) 박진규(서울여

대 교수) 손병덕(총신대 교수) 이상민(서울국제고 교사) 이

재희(가천대 교수) 유경상(CTC 대표) 유재봉(성균관대 교

수) 윤현준(서울대연구원) 장슬기(높은뜻씨앗스쿨 교감) 최

용준(한동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문석윤(경희대 교수)

학술부학회장 이호선(국민대 교수)

총무 이상무(평택대 교수)

감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임춘택(경남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손병덕(총신대 교수)

편집위원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김종훈(성신여대 교수) 손창민

(University of Virginia Tech 교수) 우종학(서울대 교수) 윤

매옥(한일장신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현은자(성균관대 교수) 현창기(한동대 교수) 황혜원

(청주대 교수) Paul Lim(Vanderbilt University 교수)



VIEW(전성민 대표)

- VIEW (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Worldview Studies in Korean (MA-WSK)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
졸업이수 학점: 54학점(2.5~3년)
- Graduate Diploma - Worldview Studies in Korean 기독교세계관 디플로마
졸업이수 학점: 33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위의 두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CTC(유경상 대표)

- CTC(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는 2019년 1학기 교육 프로그램을 잘 마무리하고 여름방학 기간 중 다양한 캠프와 특강을 진행하였다.
- 가정 사역 : <월드뷰패밀리아카데미>(기독교세계관 인문고전학교)는 1학기 동안 진행된 “기독교와 예술”(기독교 문화관) 공부를 잘 마무리했다. 2학기는 “기독교와 철학”이라는 주제로 철학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고 기독교세계관으로 조명하는 훈련을 할 예정이다.
 - 교회 사역 : 충주 함께하는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마다 열린 <성도들을 위한 기독교세계관교육 세미나>가 종강되었고, 어린이세계관학교는 방학 중에도 계속 진행되었다. 2학기는 “기독교 문화관”을 주제로 성도들을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 캠프 사역 : (사) 청소년선교햇불(황성건 대표)과 공동 주관으로 7월 22-27일 동안, 기독교세계관캠프(1차), 기독교문화관캠프(2차)를 진행하였다. 중고등 학생들에게 기독교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안내하는 훈련과 문화(영화) 속에서 다양한 세계관들을 분별하는 훈련들을 실행했다. 8월에는 ‘부모와 청년 자녀들이 함께 하는 세계관캠프’, ‘청년들을 위한 기독교세계관문화캠프’, ‘교사들을 위한 기독교세계관교육캠프’가 진행될 예정이다.
- * '기독교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다음세대 양성'을 목표로 하는 CTC 사역에 동역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 CUP는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며, 더불어 꿈꾸고 소통하며 성경적 비전을 확장시키는 나눔터의 출판을 꿈꾼다.
www.cupbooks.com 문의 : 02-745-7231
- 신간 제작 : <게리 토마스의 행복한 결혼학교>(게리 토마스 지음 | 윤종석 옮김) - 당신의 결혼생활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비결! 관계의 성장을 바라는 부부를 위한 풍부한 지혜와 진솔함으로 풀어낸 실재적 조언!
 - 재판 제작 :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손봉호 지음) - 지금은 기본으로 돌아갈 때! 광대한 공적 영역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2018 세종도서 선정작.
<연애학교>(게리 토마스 지음 | 윤종석 옮김) - 아름다운 만남과 데이트를 꿈꾸는 이들의 필독서!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티머시 제닝스 지음 | 윤종석 옮김) - 이 책의 사례는 모두 실화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뇌가 변하고 삶이 변했다.
<부부학교>(게리 토마스 지음 | 윤종석 옮김) - 부부들의 가슴을 뻥 뚫어주는 책!
<부모학교>(게리 토마스 지음 | 윤종석 옮김) -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 영혼도 함께 아름답게 빛어진다!
<일의 신학>(폴 스티븐스 지음 | 주성현 옮김) - 일에 대한 폴 스티븐스의 70평생의 연구 결과가 집대성된 역작! 성경으로부터 배우는 일에 관한 모든 것.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9년 9월 30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300,000	인건비	일반급여	5,780,000
	임원회비	480,000		기타급여	1,300,000
	일반회비	4,485,000		소계	7,080,000
	기관후원금	3,0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2,000,000
	월드뷰후원금	0		사무실관리비	0
	사무실후원금	0		통신비	303,500
	CTC후원금	80,000		우편료	7,570
	VIEW후원금	980,000		소모품비	16,500
	기타후원금	2,000,000		비품	0
	월보구독료	457,000		식비	0
	학술지원금	0		복리후생비	674,530
	세계관지역지원금	0		퇴직연금	0
	기타	450,000		컴퓨터	0
				교육비	0
		회의비		9,390	
		회계용역비		220,000	
		여비교통비		110,000	
		서무비		156,200	
		기타(지급수수료)		123,334	
	소계	12,232,000		소계	3,621,024
기타수입	일반이자	0	연구지원비	연구회연구지원	0
	법인이자	0		도서구입비	0
	법인세환급금	0		CTC후원금	78,900
	기타수입	0		VIEW후원금	912,300
	기금차입	400,000		학술지원금	0
	결산이자	2,698		세계관지역지원금	0
	예수금	338,840		10선컨텐츠	0
				소계	991,200
			출판(회지)	인쇄비	2,776,400
				발송비	239,080
				소계	3,015,480
		기타	웹진원고료	0	
			CUP기금적립	400,000	
			세금	0	
			잡비	1,000	
	소계		741,538	소계	401,00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학회	학회강사료	0
	학회행사수입	1,140,000		학회장소사용료	0
	자료집판매	0		학회자료제작비	0
	학회지판매	0		학회홍보및기타	365,330
	학술지심사비	140,000		학술지인쇄비	0
	학술지게재료	2,437,500		학술지발송비	0
	저작권료	0		학술지심사료	0
	학회기타수입	0		학회조교비	0
				학회기타	62,420
		소계		4,117,500	소계
당월 수입액		17,091,038	당월 지출액		15,536,454
전월 이월액		24,776,060	차월 이월액		26,525,324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9월 30일 마감)

회원후원

3천 김성권, 3천5백 광도명, 김봉현, 김새별, 김새별, 김성욱, 김성호, 김영주, 김정원, 김형근, 김희원, 박원근, 생명의강, 손영일, 윤정, 이지연, 이찬수, 장재수, 전병국, 전은경,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원길, 하태실, 5천 강대용,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삼욱, 김성찬, 김승택, 김영운, 김정명, 김정심, 김태영, 김혜창, 노승욱, 박광제, 박승룡, 박천규, 백승현, 범경철, 손영경, 송시성, 유종열, 유화원, 윤종선, 윤주영, 이경미, 이길구,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민화, 이수인, 이인수, 이종혁, 이항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전광학, 정진우,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 장현정, 7천5백 강찬진, 김동현, 김재우, 김지현, 박상근, 방선기, 백예은, 이경우, 이윤택, 이은수, 전영식, 진영규, 1만 David Han, 강민창,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선욱, 고웅재, 고현경, 곽정임, 권경호, 길원평, 김경호, 김경화, 김광순, 김규욱, 김근배, 김기홍, 김남진, 김도형, 김동연, 김막미,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보경,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삼욱, 김상일, 김성경,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성호, 김세형, 김세중, 김수빈, 김수진, 김승진,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규, 김영호, 김용석, 김윤권, 김은덕, 김은정, 김은태, 김재정, 김정모, 김정일, 김정준, 김정호, 김종원, 김종일, 김차남, 김주영, 김지근, 김진성, 김진희, 김창현, 김철수, 김태룡, 김태진, 김혁, 김현숙, 김현정, 김혜정, 김홍섭, 김효숙, 남선우, 노순석, 라영환, 류은정, 류지호, 류진호, 류현모, 마민호, 모상근, 모아론, 문제환, 박계호, 박능안, 박동현, 박복애,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영주, 박원근, 박은주, 박주현,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희주, 배성진,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백은석, 변우진, 부천평안교회, 서유미,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영규, 손진영, 손창민, 손하은, 손현탁, 송아영, 송종철, 송철호, 송대상, 송현미, 신경규, 신상형, 신성만, 신은주, 신진호, 신찬용, 신현정, 신호기, 심재훈, 안남주, 안병열, 안석, 안성희, 양성건, 양성철, 양승일, 양행모, 양혜영, 양혜원, 양희석, 연해민, 염동한, 오민용, 오성호, 우현기, 유건호, 유기남, 유동훈,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재은, 유지황, 유지상, 유해우, 유현동, 윤명식,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재림, 윤지혜, 윤천석,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연, 이경직, 이권철, 이기훈, 이길형,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문원, 이병수, 이상수, 이상순, 이상환, 이선복, 이상근, 이상미, 이상수, 이상실, 이세정, 이세준, 이수연, 이순진, 이승업, 이시영, 이연구, 이연경, 이연희, 이영미, 이요한, 이윤홍, 이원도,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희, 이은미, 이정기, 이정길, 이정욱, 이정일, 이종국, 이종철, 이종섭, 이지연, 이진희, 이춘석, 이해리, 이행로, 이환일,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일택, 임재광, 임춘택, 장경근, 장슬기, 장승재,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정경미, 정경식, 정다운,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성지, 정용수, 정은희, 정이레, 정재현, 정정숙, 정현구, 정현주, 정희원, 조경덕, 조미연, 조선하,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아수, 조창현, 조현용, 조현지, 조혜경,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삼열, 최상두, 최성호, 최연우, 최영, 최은정, 최종빈, 최진우, 최한빈, 최혜경, 추진연, 하성만, 하진호, 하현진, 한미영, 한혜실, 한화진, 한희수, 허선아, 허연, 허현, 현숙경, 홍구화, 홍대학, 홍성은, 홍정석, 홍종인, 황기철, 황도용,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에스더, 황인경, 황혜수, 1만5천 박정호, 정상섭, 2만 강용관, 김기현, 김용식, 김인수, 김재완, 김정욱, 김정호, 박기모, 박홍식, 배성민, 사호행, 송찬호, 신현주, 심은희,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간, 이근호, 이기서, 이희진, 정동섭, 정훈, 제양규, 채기현, 허정도, 황혜정, 3만 김경민, 김동원, 김방룡, 문석운, 문준호, 박나리, 박신현, 박종국,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오의석, 이봉근, 이은실, 임희욱, 정민, 최용훈, 추태화, 황정진, 4만 우병훈, 이정규, 황의찬, 5만 김중우, 김택호, 박정심, 서진희, 양승훈, 윤석찬, 이대경, 이상민, 이원삼, 정은애, 한윤식, 현은자, 6만 김병호, 배덕만, 석종준, 7만 박문식, 최태연, 10만 손봉호, 손정엽, 신국원, 윤완철, 장수영, 장정연, 최현일, 12만 박종화, 손수경, 이동호

계 6,802,000원

기관후원

5만 개봉교회, 교양제일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마포중앙교회, 새길침례교회, 서로사랑교회, 10만 강남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부천침례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새언약교회, 성덕교회, 신석교회, 언약교회, 예심교회, 종교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20만 바울교회, 삼일교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흰돌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200만 (주)이상네트웍스,

계 5,050,000원

전체 11,852,0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이사장
편집장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이사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유준	서울 은진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겸임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문준호	(주)렘퍼스 이사,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실행위원장
	박영주	前 수원중앙기독교초등학교 교장,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정회원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흥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겐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조직신학, 침신대 Ph.D, 사무국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정회원
	윤현준	서울대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사무국장, 변호사,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
	이상민	서울국제고 교사,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정회원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감사
	추태화	안양대 교수,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 D, 정회원
편집실무자	석종준	사무국장
	윤지혜	간사



손봉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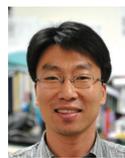
신국원



김대인



김유준



문준호



박동열



박영주



박진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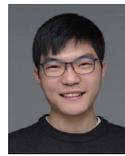
박흥식



석종준



양성만



윤현준



이병주



이상민



장수영



전명희



조성표



최태연



최현일



추태화



황영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회원 신청하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info@worldview.or.kr /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매월 CMS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매월 직접 입금	<input type="checkbox"/>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님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님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예금주 또는 가입자)

(인) 또는 서명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 바로 살기

기독교 세계관 학회

2020. 1. 10(금) ~ 11(토) 2일간
삼일교회 C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05)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 라브리공동체가 함께 합니다.

- ※등록비: 5만원(사전등록) 선착순 100명 모집
- ※등록문의: 02) 754-8004, 010) 3222-6567
- ※등록방법: 인터넷신청 → 안내 → 납부확인 → 등록완료

아름다운 동역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성인경
한국 라브리공동체 대표

- 제1회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 바로 보기(2016)
- 제2회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 바로 알기(2017)
- 제3회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 바로 살기(2020)

